소년단

1959.9

거울 앞에서

우 봉준

개학날 아침
까맣게 탄 얼굴
거울 앞에 섰노라면
들려오누나 들창 밖에선
출렁이며 노래하는 파도'소리

그 파도'소리 나를 이끌어 가누나
모래불에 덩굴며
푸른 물에 풍덩 뛰여 들어
마음껏 뛰놀던 어제
여름을 즐기던 어제도

그 파도'소리 나를 이끌어 가누
선장 아저씨 모시고
우등'불 지피던 날 밤
우리의 꿈 아저씨 따라
바다로 바다로만
내닫게 하던 그날 밤에도

개학날 아침
넓어진 가슴
거울 앞에 섰노라면
의젓한 상급생 된 이 기쁜
방금 바다로 떠나는
선장이 된듯만 싶구나

그 기쁨 일곱 빛갈 무지개 되여
나를 저 멀리로 이끌어 가누나
초중을 나오면 내가 달려 갈
사시장철 푸르른 어머니 바다
보배로 가득찬 조국의 바다

노을 붉게 비낀 거울 앞에서
이 아침 한 없이 가슴 들먹이고
온 여름내 되푸리한 맹세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누나

새 학년도엔 더 많이 배우고
배운 지식 더 많이 실습으로 익
앞날엔 어김없이 되겠노라
바다를 정복하는 젊은 선장이
조국을 지켜가는 젊은 선장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59년 9호 내용

새학년도를 맞이하여 소년단원들이 하여야 할 일

민청 중앙 위원회 학생 소년부 부부장 조 정 환

오늘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의 따뜻한 사랑과 두터운 배려 속에서 보람찬 새 학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새 희망, 새 결의로 가득 찬 뜻 깊은 신학년도를 맞이한 소년단원들 앞에는 이번 학년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 보다도 모든 소년단원들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을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 잘 학습하며 본 받는데 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위업을 이어 나갈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고상한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서는 우선 슬기로운 김 일성 원수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정신으로 자기를 튼튼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가요?

첫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보다 실속있고 충분한 내용으로 꾸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연구실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김 일성 원수의 혁명 전통을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들—쉽고 재미있는 글과 그림, 실감 있는 사판—등으로 더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와 분단들에서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일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혁명 전통 연구 발표회, 독서회, 이야기 모임, 시 랑송회, 혁명 투사들과의 상봉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한 모임들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은 김 일성 수상님의 참된 어린 전사로 자기를 더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김 일성 수상님의 참된 어린 전사로 되는 것—이는 훌륭하게 학습하는 문제와 떼여 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으면서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이번 학년도에는 보다 더 학습을 잘 할 결의들을 다짐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단원들의 으뜸가는 임무—이는 곧 학습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보다 더 훌륭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가요?

우선 중요한 것은 모든 소년단원들이 학습하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공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학습 목적—이는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훌륭히 이바지하기 위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땅 우의 락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 때 우리들이 어찌 학습을 게을리하며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학습의 목적을 똑바로 알고 지난 학습 생활과 특히는 방학간 학습 정형들을 반, 분단, 대들에서 총화하고 여기서 얻은 좋은 경험들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방법으로는 반과 분단들에서 《누구는 어떻게 하여 최우등으로 공부하게 되였는가?》, 《나의 학습과 나의 실습》 등의 여러 가지 유익한 모임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분단과 반들에서는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주워 깊게 들으며, 학습과 생산 실습을 옳게 결합하며, 학습 규률을 잘 지키며 꾸준하게 학습하도록 항상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참되고 쓸모 있는 지식을 갖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지니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주인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상하고도 참된 품성들을 가져야 할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김 일성 수상님을 선두로 한 슬기로운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신학년도에 우리에게는 어린 동생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새로 입학한 동생들을 사랑하며, 웃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례절 있고 정직한 아름다운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기를 더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그릇된 행동은 미워할 줄 알며 참된 행동은 본받을 줄 아는 소년단원들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그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릇된 행동을 하는 동무들을 폭로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왜 나쁘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타일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공동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며, 군중 도덕을 모범적으로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벽보와 속보, 풍자 만화, 그림극 등의 활동을 더 잘 하며 문학 작품 감상 모임을 조직하여 노래와 춤을 정상적으로 보급하는 등으로 항상 아름답고 명랑한 생활 속에서 지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여름도 다 지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우리들은 여름내 학습 여가를 타서 교마 5개년 계획 활동도 훌륭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 활동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 넓게, 깊게 하였으며, 로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며 이를 통하여 몸도 튼튼히 단련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정성과 땀이 스미인 보람으로 훌륭한 열매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해바라기, 피마주를 비롯한 실습지들의 작물을 한 알도 허실됨이 없이 철저히 거둬들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마 공장, 실습지들을 더 잘 꾸리며, 토끼 사육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도 잘 총화를 지어 그를 바탕으로 래년도에 할 일들을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일들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년단원들의 조직인 소년단 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는 데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 소년단원들이 자기 조직에 충실하며 대와 분단, 반들에서 위임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힘 써야 합니다. 동시에 소년단 단체에서 조직하는 일들에는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떠나서 멋대로 행동하는 동무들이 있다면 서로 제때에 타일러 주며 고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소년단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여 자기 조직에 튼튼히 뭉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학년도를 맞는 우리 소년단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또 하나는 대와 분단들에서 진행할 열성자 선거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사업은 단순히 열성자들을 새로 선거하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사업을 통하여 혁명 전통 교양을 더 잘 하며, 학습열을 높이며 소년단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데 힘 써야 하겠습니다.

9월 중순 부터 10월 말 까지 기간에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와 분단 위원회의 총화를 구체적으로 잘 하여 좋은 일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릇된 점들은 제때에 고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총화가 끝나면 지난 기간 소년단 사업에서 모범적으로 일했으며 학습에서도 우수한, 신망이 높은 동무들을 새로운 열성자로 선거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 선거된 대와 분단 열성자들은 소년단원들과 항상 의논하여 보다 유익하고 재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조직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로 선거된 열성자들은 우리 당이 매 시기 내놓는 당 정책과 김 일성 수상님의 가르침을 제때에 소년단원들에게 가르쳐 주며 그를 실천하는데 소년단원들의 앞장에 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림소설

어린 혁명 전사

① 1934년 겨울 눈 내리는 어느날이였다. 열 여섯살난 연길현 싼도만 지구의 아동단원 허 희석과 최 경숙은 이날도 인민들이 보내는 약품과 옷감들을 이고 지고 유격대 후방 병원을 찾아 가고 있었다. 살을 어일듯 매서운 바람이 불어쳤으나 두 아동단원들은 오직 의복과 약품이 떨어져 고통 받는 유격대 부상병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였다.

② 유격대 후방 병원은 놈들의 거듭되는《토벌》로 유격 지구에서도 40~50리나 떨어진 깊은 밀림 지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두 아동단원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유격대 주력 부대는 이틀전 전투에 출동한 후여서 여기에는 녀 공청원 몇 명과 의사 한 분이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있었다.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식량 공작대로 떠난 후였다. 희석이와 경숙이를 맞은 병원 일'군들은 아동단원들을 껴안으며 수고를 치하하였다.

③ 희석이와 경숙이들은 추위에 꽁꽁 언 몸을 녹일 사이도 없이 밥 짓는 일이며 부상병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을 거들어 드리기에 바삐 돌아 쳤다.

얼마 후의 일이였다. 어데선가 난데 없는 총성이 울려왔다. 병원은 오싹 긴장하였다. 이때에 희석이는 무슨 생각에선지 경숙이를 데리고 밖으로 뛰여 나갔다. 정찰을 하기 위해서였다.

④ 날파람이 있고 대담한 희석이와 경숙이는 발랑발랑 높은 소나무 우로 기여 올랐다. 그들이 앞을 내다 보니 유격지구에 쳐들어 온 놈들 중 이십 여명의 왜군들이 살살이 산판을 두지며 다가 오고 있었다. 자칫하면 병원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다. 희석이와 경숙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만일 놈들을 그냥 둔다면 부상병들의 생명이 위급하였다. 이들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들이 병원으로 달려 왔을 때 병원에서는 의사를 중심으로 긴급 회의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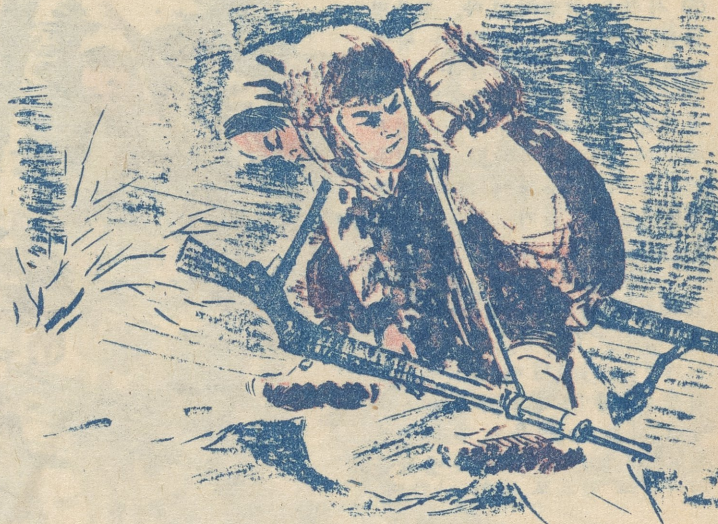
⑤ 사정은 위급하였다. 부상병들을 구원하는 길은 하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적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동안 부상병들을 안전 지대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딱한 사정은 적들은 누가 유도해 가며 부상병들은 누가 옮기는가가 문제였다. 의사는 긴장한 얼굴로 두 소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적들을 우리 유격대가 돌아 오는 길로유도해갈 수 있는가?》고다짐했다. 두 아동단원들은《네!》하고 서슴없이 대답해 나섰다. 이윽고 두 아동단원은 의사의 지시대로 총들을 검어쥐고 밖으로 뛰여 나갔다.

⑥ 희석이와 경숙은 눈 앞을 가로 질러 걸어가는 왜군들을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에서 울려 오는 총성에 놀라난 왜군들은 급기야 가던 길을 바꾸어 희석과 경숙이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두 아동단원은 위험을 생각할 대신 자기들의 계획 대로 걸려든 놈들을 유도해 가기 시작하였다.

⑦ 두 아동단원들은 우정 대부대가 지나간 흔적을 내기 위하여 마구 눈'길을 헤치며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들은 한참 가다가는 총질을 하며 계속 왜군들을 끌어 당겼다.

칼바람은 두 아동단원들의 앞길을 가로 막았고 깊은 눈무지는 그들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 그러나 혁명을 위해 목숨 바쳐 나선 이들의 앞길을 막을 것은 없었다.

⑧ 적들의 사격은 더욱 맹렬해졌다. 이들이 어느 산'등을 넘어 서려할 때였다. 별안간 경숙이가 비칠거렸다. 왼쪽 다리를 총알이 뚫고 나간 것이다. 순식간에 붉은 피는 흰 눈을 물들였다. 희석은 경숙을 등에 업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눈'길을 걸어 나갔다. 경숙이가 흘린 피'방울은 눈 우에 떨어지자 곧 얼음'방울로 변하였다. 경숙은 차츰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은 나른해졌다.

⑨ 《희석아…나를 내려 놔 줘! 어서…》하고 경숙은 말하였다. 희석은 얼른 그를 눈 우에 내려 놓고 자기 품에 안았다.

《경숙아, 용기를 내라!》 희석은 절통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벌써 왜군들은 가까이까지 몰려 들었다. 주저할 시간이라군 없었다.

《희석아… 나를 여기 두고 너만이라도 어서 가거라! 이리로 곧바로 가면 우리 유격대를 만날 수 있어!》

⑩ 희석의 가슴은 미여지듯 아파났다. 어떻게 동지를 버리고 간단 말인가? 경숙이 아무리 그를 나무랬으나 희석은 떠나려 하지 않았다. 왜놈들은 벌써 언덕을 기여 오르고 있었다.

이것을 본 희석의 두 눈에는 번쩍 불이 일었다. 그는 바위를 의지하여 기여 오르는 왜군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경숙이는 이를 새려 물고 총을 잡았다.

⑪ 눈보라 지동치는 산판에서는 두 아동단원과 20여명의 왜군들과 결사전이 벌어졌다. 경숙은 마지막까지 놈들을 대항하여 싸울 결심으로 희석이와 함께 사격을 하였다. 그러나 기운이 진한 경숙은 방아쇠를 당길 힘 조차 잃어버렸다. 그래도 경숙은 모든 힘을 다하여 다시 일어나서는 기여드는 왜군들을 향해 사격을 하였다. 한동안 사격을 하고 났을 때 이들에게는 총알이 떨어졌다. 위험한 순간이 닥쳐 온 것이다.

⑫ 불행히도 희석이와 경숙이는 놈들의 손에 붙잡히고야 말았다. 희석의 한쪽 어깨는 놈들의 총알에 맞아 붉게 물들었다.

왜군들은 그제야 두 아동단원들의 꾀에 넘어 간 것을 알고 미친듯이 덤벼 들었다. 놈들은 중상을 입고 쓰러진 두 아동단원들을 일으켜 세워 놓고 유격대의 위치와 병원을 대라고 갖은 악랄한 고문을 들이대였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각오한 두 아동단원들의 입을 열 수는 없었다.

⑬ 아무리 총창으로 찌르고 때려도 입 한 번 열지 않는 두 아동단원들을 어쩔 수가 없었던지 왜놈들은 그들을 총살하려 하였다.

두 아동단원들은 김 일성 장군의 어린 혁명 전사답게 자기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부상병들을 구원할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두 아동단원들은 소나무에 묶이운 채 죽음을 기다렸다.

이때였다. 사방에서 순식간에 콩볶듯 짖어대는 총성이 터졌다. 승리하고 돌아 오던 유격대들이였다.

⑭ 왜놈들은 돌아 설 사이도 없이 썩은 나무 너머지듯 쓰러졌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 오던 유격 부대들이 놈들을 포위하고 섬멸전을 전개한 것이다. 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고 왜놈들의 비명 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들려 왔다. 순식간에 진행된 전투에서왜 놈들은 한 놈도 남지 못하고 소탕되였다.

⑮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희석이와 경숙이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어느덧 희석이와 경숙이는 후방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정신이 들자 정치 위원은 두 아동단원들의 손목들을 꼭 쥐며 힘 있게 말하였다.

《동무들의 슬기로운 행동으로 병원은 구원되였소. 장하오! 동무들이야말로 김 일성 장군의 훌륭한 어린 전사들이요. 나는 이미 동무들을 장군께 보고하였소.》

가장 귀중한것

—함남도 영흥군 홍평 중학교 대에서—

글 조 병권　　그림 오 영복

교실 오른 쪽으로부터 둘째 줄 네번째 자리는 가끔 비군 했다. 이것이 바로 최 영호의 자리였다. 이 자리가 빌 때마다 분단 열성자들은 근심하군 했다. 영호는 가뜩이나 학업 성적이 뒤떨어진 데다 결석까지 자주 하기 때문이였다.

그날도 영호는 아무런 련락도 없이 이틀씩이나 결석했다. 분단 열성자들은 영호의 결석 리유를 알려고 영호네 집을 찾았다.

때마침 영호네 집 뜨락에는 판자며 각재들이 가득히 널려 있었다. 그 가운데서 영호는 무엇을 만들다 말고 한 아저씨께서 꾸지람을 받고 있는 참이였다.

《조합 재산을 더 잘 아껴야 할 소년단원이 이런 짓을 해서야 되겠니, 생각해봐라 랭상모 문짝을 또 만들자면 공연한 로력을 들여야 되지 않니…》

그는 봉흥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 아저씨였다. 영호는 조합에서 보관해둔 랭상모 문틀을 들어다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었다. 찾아온 동무들을 보자 영호는 흠칫 놀래여 얼굴을 폭 숙이고 말았다.

본래 영호는 손장난을 좋아 했다. 갈'대를 베여다 퉁소를 만드는가 하면 양철을 두두려 호각이나 다른 장난'감을 만들군 했다. 페니시링병 같은 투명한 병 밑판을 도려 내여 렌즈를 만들고 그것으로 환등기도 만드느라고도 해 보고 관찰용 확대경을 만들기도 했다.

한 번은 영호가 공부 시간에 자꾸만 졸고 있었다. 알아 보았더니 그는 어제'밤 파철 수집 하다 얻은 탄피로 등잔을 만들고 농업 협동 조합 뜨락또르에서 중유를 훔쳐다 불을 켜 가지고 다니면서 밤 깊도록 새 잡이를 다녔던 것이다.

그러기에 영호의 량 호주머니에는 늘 탄피, 쇠쪼각, 철사 등… 잡동산이들로 가득 차군 했다. 공부 시간에도 그는 호주머니 속의 쇠쪼각을 만지작거리며 장난할 궁리만 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그의 생활은 무질서 했다. 영호는 점점 책과 멀리 했고 공부에 취미를 잃게 되여 학교 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장난하는 것이 더 재미 있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호가 학습에 열중하게 할 수 있겠는가를 의논하기 위하여 모여 앉았다.

분단 위원장 한 일환이는 영호가 학교에 잘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취미 있어하는 공작 크루쇼크에 망라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

《공작 크루쇼크에 망라시킨다구? 훔치기질 잘하는 영호를 공작 크루쇼크에 망라시켰다가 공작실의 도구나 재료들을 잃으려구? 난 반대다.》

김 정칠이는 분단 위원장의 의견에 분개했다.

그러자 모임에 참가하셨던 분단 지도원 선생님이 빙긋이 웃음을 띠우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정칠이의 말도 옳아요, 물론 영호에게는 여러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구 만들어 보려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살리면서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공부에 열중하게 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도

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공작 크루쇼크에 망라된 영호의 열성은 무서웠다. 학교에 오면 그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작실에서 살다 싶이 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처음에 각종 실험대, 수평기, 수도의 모형, 측력계 등 간단한 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 실험 기구를 만들 것을 그에게 맡겼다. 그리고 완성되면 그가 자기가 만든 실험 기구를 가지고 동무들 앞에서 만든 과정으로 부터 그의 구조 원리까지 설명하도록 과업을 주었다. 영호는 분단이 맡긴 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군 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의 뒤떨어졌던 물리 과목은 얼마 후에는 동무들을 따라잡게 되였다.

영호에 대한 기사가 자주 분단 벽보에 게재되군 했다. 영호의 열성은 더욱 커 갔다.

하기 싫은 공부 걱정으로 학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웠던 영호에게 있어서 이제는 학교 가는 일처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그에게 제일 많던 지각, 결석은 찾아 볼 수 조차 없게 되였다. 그러나 영호의 다른 과목은 여전히 추세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분단 위원회는 이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어느날 영호 옆에 앉았던 김 치복이는 정국이 자리로 가고 정국이가 영호 옆에 와 앉았다. 분단 위원회에서 영호의 다른 과목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정국이를 그리로 보낸 것이다.

그날 문법 시간에 영호는 정국이를 괘씸하게 생각했다. 그래도 전에 같이 앉았던 치복이는 자기가 선생님의 질문에 미처 대답을 못할 때는 귀띔질도 해 주었고 숙제장도 잘 빌려 주군 했는데 정국이는 대답을 못해서 애타하는 자기를 보면서도 태연히 앉아 있는 것이였다.

방과후 정국이는 영호를 찾아 내여 영호가 시간에 대답하지 못한 것을 열심히 설명하여 도와 주었다. 영호는 속으로 《흥, 이제 와서 대주느라고 그러지 말고 아까 귀띔질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망신이라도 하지 않지?》하고 나무랬다.

영호가 정국이와 같이 앉은 지도 한 주일이 흘렀다.

정국이는 방과후이면 영호와 함께 그날 배운 과목에 대한 복습을 했고 또 숙제도 같이 했다. 영호는 차차 정국이가 진정한 동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전에 다른 동무들은 모를 것을 물으면 자기 공부가 밀렸다고 숙제장만 빌려주군 했는데 정국이는 그와는 반대로 귀띔질이나 노트를 빌려주는 일은 없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서도 영호가 알 때까지 가르쳐 주군 했다.

그러나 영호는 정국이가 그렇게도 자기의 공부를 못하면서 도와주는 열성에 비하여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정국이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느라고 열성적으로 설명할 때도 멍하니 앉아 딴생각만 하군 했다. 그러다가도 공작실로 가자고 하면 정신을 버쩍 차리고 공부하던 책도 거두는둥 만둥 뛰쳐 나가군 한다. 정국이는 영호의 이런 태도를 볼때마다 영호에 대한 미움이 가서 당장 돕기를 그만 두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러나 인차 분단 위원회가 자기에게 위임한 과업을 생각하군 했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자주 열성자 모임을 열고 정국이 한테서 그 동안 영호의 학습을 어떻게 도와 주었는가에 대하여서와 영호의 학습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여러가지 의견을 주군 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을 잊었어, 선생님은 영호가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고 만들어 보려는 그 점을 살려서 그가 공부에 열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껏 물리 과목이나 수학 과목만을 그런 방법으로 돕는데 그치고 다른 과목이야 어데 그의 취미에 맞게 도와 주었니?》

정국이 한테서 영호의 학습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 분단 위원장 일환이는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것이였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정국이에게 영호의 학습을 돕는 데서 그의 취미와 소질을 잘 살려서 진행할 것을 위임했다. 그리고 영호가 규률 있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며 학습 방법과 학습 태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라고 했다.

그 이튿날이였다. 정국이는 영호더러 확대경을 만들도록 과업을 주었다. 하루'밤 사이에 영호는 그것을 훌륭히 만들었다. 정국이는 영호와 함께 그가 만든 확대경으로 식물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세포 구조에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식물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정국이는 영호에게 식물 표본 제작 과업을 주고 표본을 만든 다음에는 그 식물에 대한 내용을 뒤'관에 자신이 써 넣게 했다.

영호는 책을 읽는 일이라면 질색이면서도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잘했다.

정국이는 영호의 학습을 이런 방법으로로 도우면서 영호가 학습에 취미를 부치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정국이는 항상 영호네 집을찾아가 학습의 목적을 가르쳐 주며 밀린 영호의 학습을 도와 주었고 그의 실력에 알맞게 일과표도 짜고 그가 규률 있게 생활하며 공부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리하여 영호는 집에 가서도 규률 있게 생활하며 학습 준비를 잘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선생님의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하게 되였고 학년말 진급 시험에서는 우등의 영예를 가지게 되였다.

성적증을 받아 든 영호는 3점과 2점만으로 가득 찼던 1학기말 성적과 4점과 5점들이 줄지어 서 있는 학년말 성적의 점수를 번갈아 훑어 보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락제생으로부터 이처럼 우등생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였던가? 그렇다, 그것은 학습의 목적을 똑똑히 깨달은 데 있었다. 학습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나는 학습에서 나의 무질서하던 생활을 버리고 학습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게 되였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훌륭한 성적을 가져다 준 원인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단 집단의 노력과 활동을 떼여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해 얼마나 힘썼던가.》

뺑소니군'의 말재주

분단 위원장—창수 동무는 왜 일할 때 마다 결석합니까?

창 수—머리가 아파서 결석합니다.

분단 위원장—머리가 아프다면서 뽈은 어떻게 차군 합니까?

창 수—뽈은 발로 차니까 일없습니다.

황북 황주군 철도 중학교 전 덕주

글 김 현구

3면이 바다로 둘린 우리 나라 바다 속은 은금 보화가 가득찬 보물고나 다름 없습니다.

고등어, 대구, 청어, 낙지 등 수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어 그중에도 수중의 왕인 고래야 말로 동해 바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수산 부문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아저씨, 형님, 누나들은 김 일성 수상님께서 지난번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열성을 다하여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동해 바다에서 포경선을 타고 나아가 고래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쾌했던 고래 잡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타고 나간 고래 잡이 배는 포경 제1호선이였습니다.

포경 제 1호 선은 선체가 아주 미끈한 배였습니다.

우유빛 같이 눈부신 갑판으로부터 키와 라침판이 있는 조타실이나 기관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모두가 최신 설비로 갖추어 있었습니다.

배에는 무전 장치도 되여 있습니다.

배의 앞머리 갑판에는 포경포가 장엄히 자리잡고 있고 뽀트, 로뿌, 구명대들이 가지런히 앞뒤로 놓여 있습니다.

시속 13 마일을 달린다는 아주 빠른 이 배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디젤기관인 60 톤 급의 포경선입니다.

우리는 밤'중에 이 포경선을 타고 바다로 나아 갔습니다.

으스름 밤에 부두를 떠난 포경선은 거칠은 물'결을 가르고 천천히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정적이 깃든 바다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칠은 물'결 소리와 배의 률동 소리 그리고 이따금 어디선가 멀리 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도 바다는 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배가 수심 200 메터의 등심선을 넘어 섰을 때야 바다에는 동이 트고 아침 태양이 물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쟁반 같은 아침의 붉은 태양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마스트의 기'발이 아침 태양에 찬연히 빛나고 바다 바람에 펄럭입니다.

흰 갈매기들이 배'길을 감돌며 낮추 떠들아갑니다.

라침판을 노리며 키를 잡고 있던 홍 성봉 선장도 조타실 창문을 열어 제끼고 이 아침의 황홀한 바다'길을 미소를 지어 내다 봅니다.

선두 갑판 포신 옆에는 벌써 포수인 손 이돈 아저씨가 나타나 름름한 기세로 서 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해풍에 그슬린 검은 얼굴에다 광대뼈가 두드러 지고 코'날이 웃뚝 솟은게 아주 의지가 강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이 아저씨가 동해 바다에서 고래 잡이에 이름난 포경 포수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밤에 고래가 물 속에서 숨쉬는 소리를 듣고 이튿날 고래가 있는 곳을 알아 낸다는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포경선에는 키를 잡고 바다'길을 가는 선장도 중요하지만 직접 고래를 잡는 포경 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는 언제나 포경 포수의 신호에 따라 선장은 동으로 서로 키를 돌립니다.

손 이돈 아저씨는 어제'밤에 벌써 배의 항로를 알린듯 홍 [illegible] 선장은 거침없이 서북쪽으로 키를 돌려 가고 있습니다.

이 손 이돈 아저씨 옆에는 그의 조수인 젊은 박 경호라는 형님이 코'노래를 불러가며 분주히 돌아치고 있습니다.

포신을 기름 걸레로 닦고 묘준관을 들여다 보기도 합니다.

그는 제대 군인으로서 배 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배에는 벌써 능수인 것 같았습니다.

배에는 이 박 경호 형님 외에도 젊은 형님들이 타고 있습니다.

갑판원인 정 결팔, 박 문일, 김 영식 형님들, 기관부에 허 동무 모두가 수무살 안팎의 젊은 형님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님의 말씀을 받들고 모두가 바다로 진출한 형님들입니다.

배가 먼 바다로 나아갈 수록 푸른 물'결은 더욱 세차게 물안개를 날립니다.

그러나 배'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분주히 자기 맡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형님은 갑판도 닦고 로뿌도 사리며 좌우 배'전에 서서 바다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감시하는 것은 이 배'전만이 아니고 높이 솟은 마스트 옆 망루에서도 망원경을 눈에다 대고 바다를 노려보고 서 있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고래떼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배가 얼마쯤 달려 나아가자 손 이돈 아저씨는 타수실로 고개를 돌리고《배'머리를 서쪽으로!》하고 웨쳤습니다. 그러자 키를 잡고 있던 홍 선장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키는 맴돌이 치듯 돌아갔습니다.

배'머리에서는 이내 요란한 물거품이 일어나면서 배는 약간 서쪽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았습니다.

《자 다들 차비들을 든든히 하게!》

손 이돈 아저씨는 흰 이를 들먹이며 이번에는 갑판원을 돌아 봅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로뿌며 권양기를 다시 한 번 매만져 보고 배'전으로 다가 섰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래떼가 나타나는 해구로 들어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망루에 지금까지 지긋이 서서 방원경을 처들고 있던 감시원이《고래떼 발견 왼쪽 전방!》하고 웨치는 소리가 되얄지게 귀'전에 들려 왔습니다.

순간《장탄 준비!》하고 손 이돈 아저씨의 벼락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포신 옆에 서 있던 몸을 성큼 배'전으로 돌린 그의 쪼푸린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리였습니다.

그는 벌써 고래를 포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고래떼가 이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왼쪽 전방이라고 소리친 곳을 찬찬히 살폈으나 망망한 대해에 흰 파도가 산악을 이루고 있을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경포에는 조수인 박 경호 형님이 벌써 장탄 준비를 하였습니다.

손 이돈 아저씨는 한 곳을 잔득 노린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래를 앞에 놓고 어느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듯 잠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타실을 향하여《우측으로 전속 전진!》하고 웨칩니다.

배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더 바삐 다우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키를 잡고 섰던 홍 성봉 선장도 조타실 창문을 와락 열어 재꼈습니다.

《벗썩 다가 갑세!》

손 이돈 아저씨의 말은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듯 다급해 졌습니다.

배가 파도에 거슬려 500 메터쯤 나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흑갈색의 고래 한 마리가 분수를 내뿜고 솟구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장관이였습니다.

그 근처는 고래의 내뿜은 분수로 하여 소낙비가 쏟아지듯 태양에 반사되여 아롱진 물 줄기들이 부옇게 내려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놈은 때로 긴 지느러미를 날개죽지처럼 휘저으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고 물에 철석철석하다가는 자맥질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놈 한 마리만이 아니였습니다.

그 고래 곁에는 또 두 마리의 고래가 헤염치고 있는게 눈에 들어 왔습니다. 《야!》 우리 입에서 저절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때 손 이돈 아저씨의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러자 배는 고레를 우회할듯 전속으로 나아가다가 기관의 발동 소리가 자즈러지며 미속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고래는 몹시 귀가 밝은 물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상한 소리에도 놀래여 도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는 기관 발동을 죽이고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듯 싶었습니다.

배와 고래의 거리는 차차 줄어 들어갔습니다.
400 메터—300 메터—200 메터로——

고래는 여기저기서 등때기와 배때기를 가로세로 눕히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배'전에서 이 광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손 이돈 아저씨는 두 다리를 썩 벌리고 그놈을 잔득 눈으로 움켜쥔 채 묘준관을 보며 포신을 고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홍 성봉 선장은 키를 조절하기에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갑판원들은 닥쳐온 결전을 앞두고 긴장되여 있습니다.

다만 망루에서 거리 측정을 알리는 감시원의 되알진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200 메터— 100 메터— 50 메터》

이제는 완전히 사격권내에 들어 섰습니다.

그러나 손 이돈 아저씨는 좀 더 가까이 접근시키지 않고는 자신 없이 발포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좀체로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왼쪽에 있던 고래가 무엇을 보고 놀랐는지 급히 물 속으로 쑥 들어 가자 그 옆에서 놀던 두 놈도 그만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앗 저걸!》

갑판에서 누가 아쉬운 듯한 소릴 쳤습니다.

그러나 손 이돈 아저씨는 조금도 실망하는 빛이 없이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리자 배는 더 나아가질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래떼가 다시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얼마 안 가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향에서 300 메터가량 떨어져 먼저 한 마리가 우측으로 파도를 떠밀며 불쑥 솟구쳐 나와 역시 분수를 내뿜습니다.

그리자 이번에는 그 뒤로 네 놈이 솟구쳐 머리를 쳐드는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포수는 조타실을 향하여 《전속!》 하고 와락 큰 소리를 웨칩니다.

그는 고래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을 듯이 다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홍 성봉 선장은 고래떼에서 눈을 떼지 않고 힘을 주어 키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갑판의 어로공들에게는 또 다시 긴장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배는 고래를 향하여 이번에는 맏받아 나갈듯이 정면으로 다가 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래와의 거리는 다시 100 메터 내로 잡아들었습니다.

이때 고래는 필경 다가드는 배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놀고 있던 놈들이 급기야 이번에는 지느러미를 추겨 세우고 나를듯이 도망치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을 본 포경 포수는 더는 가만 둘 수 없다는 듯 《전속 전속!》 소리를 지르며 포신을 도망가는 쪽으로 돌려가며 쫓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전이 벌러졌습니다.

손 이돈 아저씨는 오랜 고래 잡이 경험에 의해 그놈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래는 겨울엔 동작이 빠르나 여름에는 어지간이 굼뜨다는 것을…

그래서 고래를 쫓는 것이였습니다.

배는 요란한 전령기 소리와 함께 달려드는 파도를 박차고 달아 나갑니다.

시속 13 마일로 달리는 배는 벌써 고래를 50 메터 가까이 따라잡았습니다.

이때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좌우로 포신을 돌리며 묘준관을 노리고 있던 포경 포수의 묵직한 몸과 손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듯 드디여 움씩했습니다.

《꽝 꽝!》

바다를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가 단번에 두 번 작렬했습니다.

일순 배가 뒤흔들리고 갑판에 사리였던 로뿌가 와수수 풀려 나갔습니다.

순간 눈 앞에는 지금까지 달아 가던 고래는 보이지 않고 바다 속을 뒤엎을 것 같은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명중이다 명중!》

어로공들의 고함 소리가 배'전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명중되였다고 하는지 이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판에 사리였던 로뿌가 허냥 바다 속으로 풀려 나가는 것 밖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래를 맞힌 포창에 달린 바'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래는 그리 만만히 항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포창에 호되게 찔리고도 깊고 넓은 바다 속에서 뒤넘이를 치고 파도를 거슬려 솟구쳤다가는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휘젔는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고래의 검은 등때기와 배때기가 푸른 린광으로 번쩍이였습니다.

고래는 확실히 명중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사람들은 고래가 최후 발악할 경우를 생각해선지 가까이 다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창에 달린 로뿌 줄을 느려 주며 고래가 뒤넘이를 치는 대로 따라서 선장은 배를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얼마 안가서 고래가 다시 솟구쳤을 때 손 이돈 아저씨는 두 번째 포의 방아쇠를 잡아 당겼습니다.

두 번째 맞고서야 고래는 완전히 항복된듯 그 큰 몸뚱아리를 들씌우는 파도에 떠밀려 나타났습니다.

《지독한 놈이야 하하하…》

비로소 손 이돈 아저씨와 홍 선장 입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갑판의 어로공들은 정 경팔 형님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나는듯이 앞을 다투어 윈찌로 로뿌 줄을 서서히 죄여 감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래 잡이는 이것만으로 그친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날 더욱 통쾌했던 것은 그후 한 시간 가량 지나서 다시 고래떼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일입니다.

지금까지 손 이돈 아저씨의 조수였던 제대 군인 박 경호 형님이 나서며 《아바이 나두 좀 쏴 봤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실 수 없을가요?》 하고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였습니다.

《허 벌써 솜씨 뵈려나?》

손 이돈 아저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그것 참 잊었군… 자 어디 그럼!》 하고 포경포 앞을 선듯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경호 형님은 더 말 없이 이내 웃동을 훌쩍 벗어 던지자 재빨리 장탄을 하고는 묘준관 앞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알지?…버썩 다가가서 제끼란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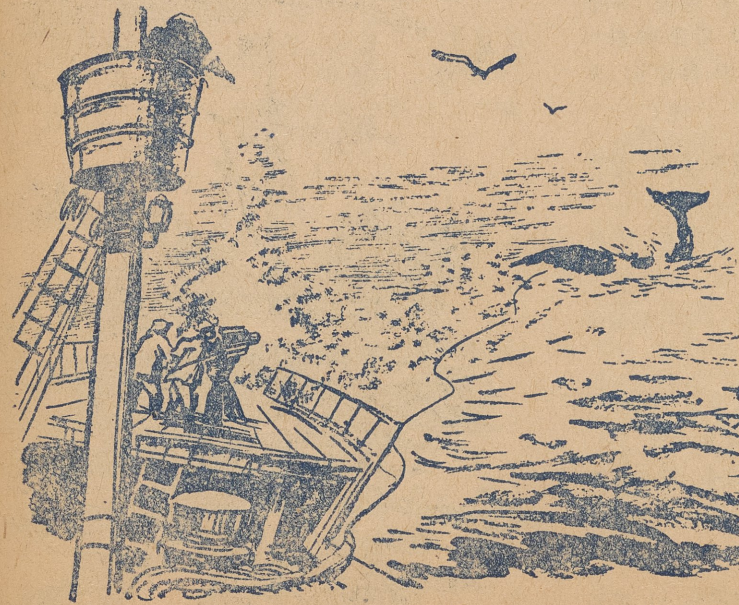
손 이돈 아저씨는 그의 뒤로 바싹 닥아가서 묘준관으로 손을 이끌어 줄듯이 눈을 가져 갑니다.

젊은 어로공들이 이 광경을 보자 자기 일처럼 모두 신이 나서 두 팔을 걷어 올립니다.

그러나 일부 늙은 갑판원들 속에서는 《아직은 좀 일르지…》 하고 수군덕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홍 선장도 눈을 둥그래 가지고 키를 잡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불쑥 나타난 고래 떼는 배가 가고 있는 전방 300 메터 앞에 보였습니다.

망루에서 감시원의 목소리가 전번이나 다름 없이 되얄지게

울렸습니다.

박 경호 형님의 얼굴은 온 피'줄이 그리로 쏠리는듯 너무도 긴장돼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도 너무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장된 그 얼굴 그대로 묘준판을 노리고 선장에게 별반 신호도 없이 60 메터 거리에 접근해 왔을때 손에 힘을 주어 정면으로 사격한 것이였습니다.

《꽝 꽝!》

이번에도 요란한 소리가 일순 바다를 삼킬듯 울부짖고 배가 기웃둥 거렸습니다.

《로쁘가 풀려나가오!》

갑판에서 함성이 울렸습니다.

《명중이다 명중!》

고래는 젊은이가 쏜 단 한 방의 포경탄에 심장을 맞은듯 더는 용트림도 물'기둥도 오래 일쿠지 못하고 그만 검푸른 배때기와 한 쪽 지느러미를 우로 쳐들어 보이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야 대단한 솜씨로군!》

먼저 그의 앞으로 좇아와 손목을 덥석 잡아쥔 사람은 손 이돈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20년간 배를 타고 오늘이야 이름난 포경포수가 되였는데 배를 탄지 불과 몇 달도 안되는 이 형님이 고래를, 그것도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는 사실은 그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젊은인 젊은이군 대담해, 나 같으면 60 메터 거리에선 손이 떨려 쏘지도 못했을 걸세!》

손 이돈 아저씨는 젊은 조수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홍 선장도 늙은 어로공들도 젊은 갑판원들이 그를 에워 쌓습니다.

박 경호 형님은 그저 겸손한 웃음을 입가에 띠우며 후연한 바다'길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다'길을 바라 보는 그의 두 눈은 앞으로도 고래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잡아 때릴 자신심에 불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바다에 나온지 얼마 안된다는 이 젊은 형님이 단번에 고래를 쏘아 맞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그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명중시켰습니까?》

그는 이 물음에 대해 잠시 서먹해 하더니 《저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래 매일 같이 책도 보며 사격 련습도 거듭했습니다. 그래 오늘 처음 쏴 본 셈입니다.》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당이 부르는 길을 따라 바다에 나온 형님들은 정말로 당 앞에 무한히 충실한 형님들입니다.

오늘 그 큰 고래를 잡은 이 형님이나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고기떼를 좇아다니는 형님들이 어찌 장하지 않으며 당 앞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 잡은 고래의 길이는 두 마리가 다 10 메터가 넘고 중량이 열 두 톤 되는 놈들이 였습니다.

그 고래 한 마리는 큰 돼지로 친다면 2백 마리가 넘겠고 황소라면 30 마리가 되는 것들이였습니다.

이날 포경 제 1호선의 고래 잡이 아저씨들은 이것에 자만함이 없이 수상님 앞에 맹세한 1천 마리의 고래를 잡기 위하여 또다시 거치른 파도를 박차고 계속 심해와 원해로 나아갔습니다.

글 신 진 균

오전반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 온 무원이는 점심 밥을 대충 퍼 먹고 나서 곧 목총 만들 차비에 서둘렀다.

그는 방과후 분단에서 다같이 진행하기로 된 토끼사 짓는 일엔 아예 참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톱과 대패를 얻어 든 그는 마루방을 내려서면서 《어머니! 아이들이 와서 저를 찾으면 없다고 해 주세요.》하고 당부까지 하였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너 어델가니?》하고 물었다.

《뭘 좀 할일이 있어요.》 하고 그는 부랴부랴 고'간으로 뛰여 들어가 목총'감이 될만한 널판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고'간을 거의 발칵 뒤졌으나 쓸만한 목총'감은 눈에 띠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얇은 널판자를 얻어 가지고 이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때 일환이와 태웅이가 무원이를 찾아 왔다. 무원이네 집 대문'간에 이른 그들은 큰 소리로 《무원아!》하고 불렀다. 그러나 무원이의 대답은 없었다. 그대신 어머니가 나오셔서 《무원인 지금 집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였다.

《학교에 나간댔어요?》

《아니 어데 잠간 갔다 올 일이 있어 나갔다.》

《그래요? 우린 오늘 다같이 학교에 나가 토끼사를 짓기로 했는데요.》

일환이와 태웅이는 그만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 섰다.

아이들이 돌아 간 것을 안 무원이는 《인젠 됐다》는 듯 긴 숨을 내 쉬며 어슬렁 어슬렁 고'간에서 나왔다.

그런데 일은 무원이의 생각 대로 순조롭게 끝나지 않았다.

얼마후 토끼사를 짓던 분단 동무들은 톱과 마치 등 도구의 부족으로 일'손을 재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던 끝에 무원이네 집 톱이라도 빌려다 쓰려고 일환이를 다시 보내게 되였다.

톱 얻으려 막 뛰여 간 일환이가 무원이네 대문'간에 들어 섰을때 그는 뜻밖에도 뜰악에 나와 있는 무원이와 마주쳤다.

《아니 넌 어델 갔댔니?》 일환이의 물음에 당황한 무원이는 그저 어쩔 바를 몰라 《저——외가'집에 가려다 말고 그만 돌아

왔어.》 하고 거짓말로 슬쩍 넘겨 버렸다.

《그럼 됐어 이제라도 우리 함께 톱이나 가지고 학교에 가자꾸나.》

이리하여 무원이는 할 수 없이 일환이와 함께 학교에 나오게 되였다.

그러나 이날 토끼사 짓는 일에서 무원이는 동무들 틈에 끼여 일은 하면서도 어쩐지 하다 만 목총 생각이 좀처럼 머리 구석을 떠나지 않았다.

(거참 멋 있는 목총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널판자를 켜가던 그는 피나무 판자를 보자 (저놈의 판자로 목총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 속에 번개 같이 스쳐 지났다.

원래 무원이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집단의 일이건 무엇이건 죄다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였다.

그는 옆의 동무들을 슬금슬금 쳐다 보며 (어떻게 저놈을 가져갈 수 없을가? …)고 이리 저리 궁리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까짓것 가져간다고 큰 일 날건 없어, 이건 내가 훔치려는 것도 아니야 멋있는 목총을 만들어 전람회에 내놓으려는 거니깐…)

이렇게 결심한 그는 얼핏 피나무 판자

를 들어 담 넘어에 떨구었던 것이다.

널판자는 담 넘어에 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땀을 들이고 있던 일환이가 이것을 보았다.

그는 무심코 《얘, 널판자를 왜 넘어뜨리니?》 하고 소리쳤다. 그바람에 모든 동무들의 시선은 무원이에게로 쏠렸다.

《넌 또 딴 궁리를 했구나, 이건 토끼사문을 만들 중요한 재료인데.》

《아니 이건 남몰래 훔치려는 거야―》

동무들은 저마다 무원이의 행동을 꾸짖으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동무들의 이 비판은 무원이에게 달갑게 접수되지 않았다.

《그까짓 널쪼각 하나쯤 가지고 뭐 야단이야》

그는 오히려 동무들의 비판을 불쾌히만 여겼다. 더우기 같은 마을에 살면서 그것쯤 감싸 주려 하지 않고 굳이 밝혀 낸 일환이가 몹시 괘씸스러웠다.

무원이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하고 두덜거렸다.

이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무원이와 일환이는 태웅이네 집에 들려 토끼사에 깔아 줄 벼'짚을 얻어 가지고 가게 되였다.

벼'짚 가리에서 짚을 골라 내느라고 오르내리던 일환이는 그만 호주머니에서 잉크병이 빠져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무원이는 그것을 집어 일환이에게 주려고 하였다. 순간 그의 머리 속에는 바로 어제 토방에 떨구어 깨진 자기 잉크병 생각이 났다. 그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서리다 그만 잉크병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잉크병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 보니 또 일을 잘못 저지른 것만 같애 그의 마음은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저녁 늦게 자리에 누은 무원이는 하루 생활에서 자기가 저지른 행동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목총 만들 생각에 집단의 규률을 위반하고 동무들을 속이려 한 일, 그리고 동무들을 속이려고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킨 자기가 한없이 민망스러웠다.

그런데 또 남의 잉크병을 몰래 가지고 왔으니 마음은 더욱 불안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이걸 괘히 또 가져 왔구나, 야단인데! 그럴 바엔 시치미를 따고 모르는 척 할가?》

이렇게 이 궁리 저 궁리 하며 잉크병을 꺼내 만지작거리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그 병은 어데서 생겼니?》 하고 물으시는 것이였다.

무원이는 얼'결에 《어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산거애요.》하고 또 엉뚱한 거짓말을 해 버렸다.

어머니는 《거 참 너도 차차 헴이 드는구나.》 하며 칭찬까지 하셨다.

어머니의 칭찬은 무원이의 마음을 더욱 언짢게 하였다. 그는 또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 후회되였다.

이튿날이였다. 일환이는 잉크병을 잃어서인지 곁의 아이의 잉크를 빌려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본 무원이는 어쩐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일을 저지른 자기가 민망스러워나기까지 했다.

휴식 시간이였다. 무원이는 일환이의 얼굴을 보기가 면구스러워 슬슬 피해 다녔다. 그러던 중 그만 일환이와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였다. 무원이는 억지로 시치미를 뚝 따고 모른 체 하였다.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편찮아 《얘, 너 우리 스포츠 학교에 다니지 않겠니, 참 멋 있다》 하며 땅바닥에 꺼꾸러 서는 흉내까지 내려 하였다.

바로 그때 호주머니에서 떼구르르 일환이의 잉크병이 빠져 나왔다.

일환이는 얼핏 그 잉크병을 쥐고 《너 이건 누구거야?》 하고 물었다.

무원이는 그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야 정말 이 이걸 너 어저께 두고 갔드구나.》하며 무원이는 말더듬을 하며 대'구했다.

《그래 건사해 줘서 고마워.》 일환이는 그에게 이렇게 인사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잡으며 《무원아, 너 어제 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친절히 물었다.

《뭐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나오려고

한 것은 아니야, 멋 있는 목총을 만들려고 그랬지, 널판자도 내가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였어―》

무원이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것이였다.

그러자 일환이는 어이가 없어 《글쎄 멋 있는 목총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러나 넌 자기 일만 생각하고 집단을 잊고 있었어. 분단이 다같이 하기로 된 일에 너 혼자 목총을 만들려고 빠지면 어떻거니, 좀 더 곰곰히 생각해 봐.》 하고 친절히 타일렀다.

이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무원이는 어제 있은 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와 그렇게 친하던 일환이를 잘못 생각케 되였던 자기의 행동을 곰곰히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일환이의 말대로 나는 개인의 리익만을 생각하고 집단의 리익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 확실히 어리석은 일이였구나, 일환이는 지금도 나를 자기의 동무로 믿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을 뉘우친 무원이는 공부가 끝나기가 바쁘게 일환이에게로 달려 갔다.

(개성시 선죽 중학교대에서)

글 최 옥선

8. 15 해방 14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예술 써클 종합 공연의 첫 막이 열리였다.

무대에는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나타났다. 해주 승마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공연 첫 프로를 차지한 것이다.

흥분 속에서 막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관중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꽃봉오리들이 무대의 첫 프로를 차지한 것을 기특히 생각하면서 사랑에 찬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꽃봉오리들의 공연은 24 명의 꼬마들로 구성된 민족 관현 악단의 연주로부터 시작되였다.

이들은 민족 기악 합주 《영상 회상》을 연주하였는데 가야금이며 행금, 양금, 피리 등을 가지고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이였다.

특히 이중에는 열 한살인 리 승철 어린 연주가의 재능 있는 행금 연주가 관중들을 흥분케 하였다.

이날 공연에서 관중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열렬한 절찬과 사랑을 보내였다. 관람자들은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 ×

이 학교 연예 써클원들은 작년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 출연한 일이 있다. 이들은 이때 군무 《해바라기》를 가지고 출연하여 1등 상을 받았다.

이들이 종합 공연에 출연하였을 때였다. 이 공연을 관람하신 김 일성 수상님은 공연이 끝난 후 친히 이들과 만나시였다. 원수님은 이들을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면서 민족 악기 1조와 양복 한 벌씩을 선물로 주시였다. 그때 원수님께서는 민족 악기를 잘 다루어 꼭 다음 해 축전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들이 수상님이 주신 선물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와—》하고 물'결 같이 밀려 나와 수상님이 주신 선물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서로 붙안고 뺑뺑 돌아 가기도 하였다.

동무들은 가슴이 터질듯한 감격과 기쁨을 안고 강당으로 몰려 들어 갔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대 모임을 열고 동무들에게 선물을 보여주면서 수상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였다. 동무들은 한결같이 수상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자고 맹세하였다.

그후 대 위원회에서는 동무들의 의견에 의해 각 분단에서 선발하여 군중적인 기악 써클을 조직하였다. 써클에는 백 여 명의 소년단원들이 망라되였다.

처음 기악 써클을 조직할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대담하게 써클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써클원들은 리 종배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먼저 민족 음악 감상회로부터 시작하였다. 다음에는 수상님이 주신 민족 악기를 놓고 조선 민족 악기에 대한 유래, 특성 등 악기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이렇게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다음 악보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악보를 자유로 볼 수 있게까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어떤 동무들은 악보를 빨리 익히지 못하여 지루해 하면서 동요하는 동무도 있었다.

그래 대 위원회에서는 이들에게 뜬금으로라도 악기를 직접 다루게 하면서 악기 쥐는 법, 연주하는 자세 등을 배우게 했다. 그리고 악보를 보는 데까지 점차 숙련시켰다.

그 후에는 취미에 따라 가야금반, 행금반, 피리반 등 파트별로 나뉘여 배우게 되였다.

이렇게 파트별로 배우기 시작한지 2 개월 만에는 조선 민요 도라지와 기타 쉬운 곡목들을 서툴게나마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연주하기 까지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였다.

동무들 중에는 배우던 도중에 그만 두려고 하는 동무도 있었다.

관람자들의 칭찬을 받은 리 승철 동무도 처음엔 곤난을 이겨 내지 못하고 동요하던 그런 동무였다.

그는 처음에 흥미 있어 배우려 하였지만 연주법이 복잡해지자 차츰 싫증을 느끼고 《아무리 노력해두 마음 먹은 대루 되지두 않는걸 애써서 뭘한단 말이냐.》고 하면서 써클에 참가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였다.

이러한 어느날 써클원들은 대 열성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였다.

모임에서는 수상님의 말씀과 수상님 앞에서 한 자기들의 맹세를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그러면서 수상님 앞에서 다시 공연할 그날까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배우자고 하였다.

승철이는 이때 수상님의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일, 수상님 앞에서 다시 한 번 공연하자고 맹세 다지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이후부터 승철이는 다시 결심하고 써클에 참가하였다. 이를 어떻게 결심하였던지는 모르나 기회만 있으면 도립 극장 배우들을 찾아가 배워 가지고 오군 하였다.

이렇게 얼마간 날이 지나면서 써클에서는 몇 개의 프로를 완성하게 되였다. 그래 2. 8절을 계기로 인민군 아저씨들 앞에서 혁명가요 련곡을 비롯하여 몇 개의 곡목을 가지고 첫 출연을 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다소 자신을 얻게 된 동무들은 4월 15일 김 일성 수상님의 탄생 기념일을 계기로 이번 축전에 출연한 바라이떼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 민족 기악 합주 《영상회상》 등을 준비하였고 리 미영은 양금 독주, 리 승철은 행금 독주, 리 철근은 피리 독주, 김 영덕은 단소 독주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10 여 곡목에 가까운 프로를 가지고 4월 15일에는 전체 해주 시민들 앞에서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공장, 농업 협동 조합 등에 위안 공연을 다니면서 출연할 때마다 더욱 연구하여 훌륭히 익혀 갔다.

이들은 다시 만나자고 하신 수상님 앞에서 연주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우등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악 련습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전국 예술 축전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동무들 24 명으로 민족 관현 악단을 구성하여 출연하게 되였던 것이다.

× ×

이렇게 준비하여 다시 수상님이 계시는 곳 평양에서 공연하는 이들의 연주를 관람하는 관람자들의 환영은 단순히 어리고 귀여운 소년들이라고 생각한 데서가 아니라 수상님의 사랑에 고무되여 진지하고 열성적인 노력을 한 흔적과 그 예술적 수준이 비상히 높은 데 탄복하는 것이였다.

관람자들은 장차 조선의 예술 무대를 아름답게 꽃피울 미래들을 향해 절찬을 보내여 기뻐하는 것이였다.

왼편 사진…민족 기악 합주 《영상회상》
우의 사진…재능 있는 어린 연주가 리 승철 동무의 행금 독주

우리는 이렇게 학습한다

나의 과목별 학습

나는 이번 진급 시험에서도 최우등을 했습니다. 각 과목을 모두 5점 맞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학습의 목적을 정확히 깨달은 데서 얻어진 성과입니다. 나는 초급반 1학년 때 까지만 해도 그저 점수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때문에 시험 대목에 가서야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최우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학습 태도를 알아차린 분단 위원회에서는 나에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훌륭히 복무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라는 학습의 목적을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군으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취미있는 어느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고 모든 과목의 공부를 다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까지 어렵고 취미 없다고 하면서 복습 조차 힘들여 하지 않아 매우 뒤떨어졌던 과목들에 중점을 두어 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하와 산수 과목이 제일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루 복습 시간의 절반은 어려운 과목 학습에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느 한 과목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학습합니다. 기하 과목에서는 그날 그날 배우는 정리를 외우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등의 실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실지 작업을 하지 않고 정리만 외워 가지고는 작도를 훌륭히 할 수 없습니다.

문학이나 문법 과목은 아주 헐한 과목 같으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나는 문학 공부는 되도록 작품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품의 주제, 사상성 그리고 인물 형상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그날 배운 품사의 내용을 례를 많이 들어 보면서 복습을 합니다. 감동사에 대하여 배웠다면 감동사를 넣어 문장을 지어도 보고 또 다른 문장에서 감동사를 찾아 내여도 보면서 공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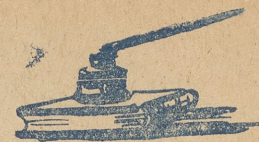
력사에서도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력사 이야기 책을 많이 읽어 력사 지식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2학년에서만도 《우리 나라 명인들》을 비롯하여 11 권의 력사 이야기 책을 읽었습니다.

지리에서는 지도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 배운 내용(도시, 산맥, 강, 하천, 교통, 유용 광물 분포…)을 백지도에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내용을 설명해 봅니다. 나는 2학년 1학기에 지도 작업을 하지 않고 줄줄 외우기만 했다가 망신한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대하여 말하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말로는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그 도시를 찾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만 지도 앞에서 주물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리를 배우는 족족 지도 작업을 하군 합니다.

나는 매 과목들을 배우는 차례로 제때에 복습해두군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가서 벼락 공부를 하지 않고도 자신 있는 답안을 내군 합니다.

함남도 광청군 대흥 중학교
리 춘강

45분과 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45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등을 하는가 락제를 하는가 하는 것은 45분 동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도 중요하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45분간의 수업 시간에서 1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힘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수업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학교에 오면 그날 시간표 순서 대로 책을 정돈하여 책상 안에 넣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의 교과서와 학습 도구를 미리 책상 우에 내놓고 휴식합니다. 지난 날에는 종이 울린 다음에야 들어 와서 책을 내 놓느라고 몇 분간씩의 시간을 잃어 버리군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휴식 시간(겨울은 제외)에는 너무 과중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달리기를 하다 들어 왔더니 막 땀이 비오듯 흘러 내리는 바람에 땀을 훔치며, 가쁜 숨을 돌리느라고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휴식 시간에 간단한 유희나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불러 머리를 정돈하면서 다음 학습 시간을 준비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속으로 그 동무의 대답과 나의 준비한 내용을 대비해 봅니다. 그러다 그 동무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대답을 할 때에는 곧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은 산수 시간에 김금옥 동무와 장 금분 동무들이 만년필에 잉크를 넣어 가지고는 파이프를 눌러서 한 방울씩 떨어 뜨리면서 누가 만년필에 잉크를 많이 넣었는가를 내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나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 끝에 선생님께서 그 시간 배운 것을 질문했을 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가서 30분이면 되군 하던 산수 복습을 2시간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 바람에 다른 과목 복습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교수 시간에 곁눈질 한 번 하는 것이 학습에 이처럼 큰 지장을 줍니다. 나는 그후부터 공부 시간에는 어떠한 일에도 참견치 않았습니다.

함북도 청진시 수남 중학교 대
제 10분단 안 영희

공작실은 나의 학습을 훌륭히 도왔다

우리 학원에는 공작 기계, 재봉침 등 각종 기계들이 갖추어진 공작실과 용선로, 단야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원에 있는 이 각종 기계들을 다루면서 기계의 지식을 훌륭히 배우고 있습니다.

외면과 내면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노기스 사용법도 배웠고 선반, 볼반을 운전하는 기술도 배워 이제는 아주 정밀한 기계의 부분품도 우리들의 손으로 훌륭히 깎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반, 볼반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신 있게 분해하고 조립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힘으로 목선반까지 훌륭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계 지식도 훌륭히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목선반과 다른 기계의 부속품들의 설계 도면은 모두 우리들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러기에 남들은 기하 과목에서 작도가 막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쉽습니다. 아마 내가 공작실에서 공작물의 설계를 하면서 설계 지식을 배운 탓인가 봅니다.

나는 물리 과목에서 배운 《간단한 측정》, 《운동과 힘》에 대한 지식도 공작실에서 기계를 다루면서 더 넓고 깊게 알게 되였습니다.

공작실에서의 실습은 나의 물리, 수학, 기하 학습을 훌륭히 도왔고 나를 최우등으로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김 용범 유자녀 학원 대
제 1분단 배 영찬

꼬마 목장

—자강도 시중군 시중 중학교 대에서—

그림 남 현주

지난해 새 학년도가 시작된 첫 주 어느 날 동물 과목 시간이였다.

교과서를 펼쳐 든 소년단원들은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이여서 저마다 호기심을 안고 선생님의 강의에 열중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동물의 다양한 생활 환경과 관련된 그의 구조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동물들을 보호하며 기르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활 조건에 관한 지식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의에 흥미를 가지고 귀담아 듣고 있던 김 무남이는 좀 전부터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일어 설듯 말듯 망서리다가는 옆의 동무들과 쑥덕거리군 한다.

《얘, 선생님에게 꼬마 목장을 만들자고 말해 볼가? 가축들을 직접 기르면 동물의 생활 조건에 대한 생생한 산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니?》

무남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리유가 있다. 그는 1학년 때에 식물 과목에서 누구보다 뒤떨어진 동무였었다. 그런데 그는 학교의 실습지 작업에 참가하면서부터 식물에 취미를 가지게 되였다. 밭갈이로부터 거름 주기, 씨 뿌리기, 김매기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토양의 성분을 연구하는 실험도 하고 비료의 종류, 각종 재배 식물의 형태와 생활 조건, 그리고 식물의 특정 식물의 생장과 발육 등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무남이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지식은 언제나 머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제 2학년 학년 말에는 식물 과목에서 최우등의 영예를 얻게 된 것이다.

《선생님!》

무남이는 선생님을 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동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린다.

《꼬마 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꼬마 목장? 좋은 생각입니다.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년단원들은 좋아라고 박수까지 쳤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곧 《꼬마 목장》 건설 계획을 의논하고 그 일에 착수했다.

그때로부터 2 주일이 지난 어느날 오후였다. 한 조합원 아저씨가 두 마리의 새끼 돼지를 가지고 학교에 찾아 오셨다.

소년단원들의 《꼬마 목장》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농업 협동 조합 아저씨들은 조합 돼지를 선물로 보내 준 것이다. 그 날 분단에서는 모임이 열렸다.

《꼬마 목장》을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하여서였다.

《시시하게 남자들이 돼지물 바가지를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그야 녀자들이나 할 일이지, 돼지 사양 관리는 녀자들에게 떼여 맡기자.》

로동이라면 나서기 싫어하는 안 종빈이는 돼지 사양 관리 문제가 제기되자 대뜸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목적이 어데 있니? 가축을 기르면서 그의 생활 습성도 관찰하고 사양 관리법도 배워 우리들이 배우는 동물 과목 지식을 넓혀 나가자는 게 아니냐.》

분단 위원장 손 택수는 이렇게 타일러 주었다. 종빈이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꼬마 목장》이 생겨나자 소년단원들은 너도 나도 열성스럽게 참가했다. 어떤 동무들은 자기가 기르던 집 토끼를, 어떤 동무들은 닭을 《꼬마 목장》으로 가져 왔다.

분단 위원회에서는 무남이 선현이 등 몇몇 동무들을 마을 농업 협동 조합 축산반과 시중 채종 농장에 보내여 가축의 사양 관리 방법, 사료 조리 및 급여량 계산 방법 등 축산 지식을 배워 오도록했다. 그들은 조합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동무들과 함께 《꼬마 목장》에서 실천에 옮기면서 축산 지식을 더욱 풍부히했다. 한편 군 가축 병원과 련계를 가지면서 30 여 종의 각종 의약품과 주사약을 갖춘 수의 진료소를 만들어 놓고 약 처방 및 조제법, 병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수의 지식도 배웠다.

그러나 종빈이를 비롯한 몇몇 동무들은 계속 사양 관리에 잘 참가하지 않았다. 그들은《돼지는 똥물에서 자래워야 병 없이 무럭무럭 큰다》고 낡은 사양 방법을 고집하면서 당번 때에는 청소도 해 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분단에서는 잘 타일러 주군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 동안 《꼬마 목장》에는 많은 토끼들이 불어났고 두 마리의 암돼지는 새끼를 배였다.

어느날 한 마리의 어미 돼지가 6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소년단원들의 기쁨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무남이는 너무 좋아서 우유까지 사다 갓 낳은 새끼 돼지에 먹이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날 새끼 돼지들은 발버둥질을 치더니 나중에는 마치 기지개나 펴듯 네발을 앞뒤로 빳빳이 뻗치고 죽고 말았다. 죽어 넘어지는 새끼 돼지를 안은 무남이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가 돼지에 과격한 충격을 주지 않았니? 돼지는 조산했구나.》

죽은 새끼 돼지를 해부해 보시고 난 가축 병원 수의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며 둘러선 동무들을 번갈아 훑어 보시는 것이였다.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이 돼지의 사양 관리 지식이 부족하여 돼지를 조산시킨 것

을 분하게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섭섭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조합 사양공 아저씨들을 찾아 가 《새끼 밴 어미 돼지의 사양 관리법》, 《새끼 돼지의 분만》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새끼 밴 다른 어미 돼지의 사양 관리를 잘 하였다. 드디여 그 어미 돼지도 6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새끼들은 모두 건강했다. 가축의 사양 관리에 익숙해졌고 훌륭한 지식을 가지게 된 이들은 모두 가축들을 자신 만만하게 기를 수 있게 되였다.

어느 일요일 무남이는 읍에 내려 온 종빈이를 길'가에서 만났다.

《가축 병원에 심부름 왔댔어, 집 돼지가 병들었어, 그런데 수의사 선생님이 농촌으로 출장 나가시고 계시지 않어.》

종빈이는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무남이는 선현이와 함께 종빈네 집을 찾아 갔다. 돼지는 오줌똥 물이 질펀한 우리 안에서 주둥이를 박고 몹시 가쁜 숨을 쉬고 있는데 이따금 기침까지 쿨룩쿨룩 깇고 있었다.

《폐염이구나, 돼지 우리가 이렇게 불결한데 왜 병이 안 걸리겠니, 우리를 깨끗이 거두고 병이 나을 동안 영양을 좋게 해 주고 안정시켜 주어야 겠다. 수의사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곧 모셔다 보이기로 하구 그 동안은 우리 학교 진료소에서 약을 가져다 먹이기로 하자.》

돼지의 홍문에서 체온계를 뽑아 든 선현이는 이렇게 말하며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다음날부터 종빈이는 무남이와 선현이가 주는 약을 가져다 먹이면서 선현이가 가르친 대로 간호해 주었다. 하 주일 후 종빈이께서 돼지의 병이 픽 나아 졌다는 소식을 들은 무남이와 선현이는 종빈네 집을 찾았다.

《돼지가 물을 잘 먹는다. 참 지금 애들은 기술두 훌륭하지.》

무남이를 만난 종빈이 아버지는 기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소년단원들을 칭찬했다.

곁에 섰던 종빈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얼굴을 붉혔다. 《꼬마 목장》에서 무엇을 배우겠다고 야단들이냐 고 하면서 사양 관리에 열성적으로 나오는 무남이를 비웃어 주던 자기가 부끄러워 진 것이다.

《무남아! 난 참 말 바보였어, 이번에 정말 생산 로동과 결부하여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깨달았어, 앞으로는 책에만 매달려 졸졸 외우는 그런 방법을 절대로 하지 않을 테야.》

종빈이는 무남이의 손을 힘껏 쥐어 흔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였다.

(본사 기자)

[illegible]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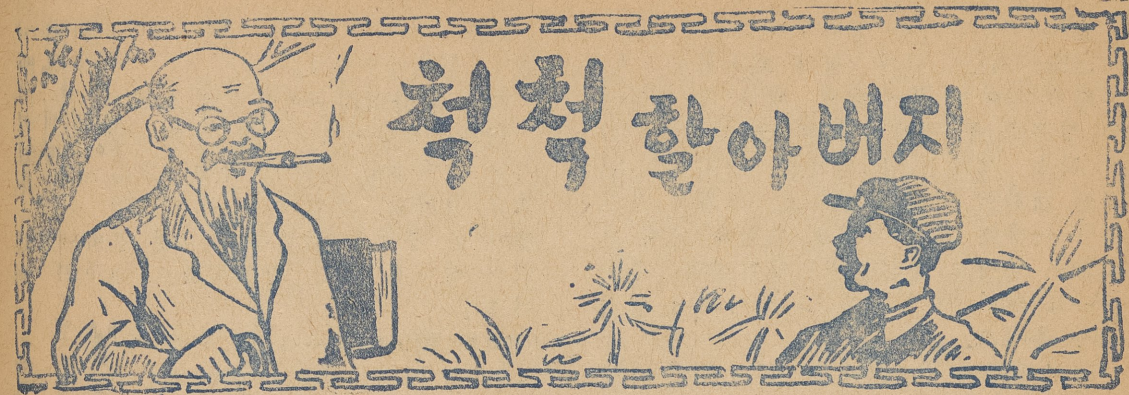
꽃이 오래'동안 피여 있게 하자면

꽃병에 꽂은 오래 가지 않고 곧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자른 곳을 살균 (균을 없애는 것) 또는 소독을 하면 썩지 않고 오래 동안 피여 있다.

☆ 홍초, 다리야, 코스모스, 아스파라가스 등을 병에 꽂기 전에 자른 곳을 1~3분간 알콜 또는 소주에 담그었다 내면 오래 핀다.

☆ 꽃창포, 붓꽃, 다리야 등의 자른 곳에 소금을 약간 발라 주면 오래 핀다.

☆ 모란, 홍초, 국화, 다리야, 작약, 부용 등의 자른 곳을 불에 약간 태웠다가 꽂으면 오래 핀다.

☆ 작약, 다리야, 구라지오라스, 라이락 등은 자른 마디에서 약 3 센치메터 가량 껍질을 벗겨서 뜨거운 물에 2~3 초 동안 담구어 두었다가 인차 병에 꽂으면 오래 핀다.

학생들—할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잘들 있었느냐 그래 방학간 생활은 어떠했냐?

학생들—정말 재미 있었어요!!

성태—할아버지 오늘은 방학간 크루쇼크 활동에서 생겼던 의문들을 풀어 주세요.

할아버지—오냐 무엇이든지 물어 봐라.

성태—저는 축산 크루쇼크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르는 돼지들은 자꾸만 땅을 뚜지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그야 너희들이 돼지에게 사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이겠지.

성탄—아니예요. 우리는 정성껏 장만한 씰로쓰, 음식 찌꺼기, 능쟁이풀, 뚝감자 같은 수분이 많은 다즙 사료와 겨, 대두박, 옥수수 같은 영양가 높은 좋은 사료에다 조사료까지 섞어서 먹이고 있는데요 뭐…

척척 할아버지—글쎄 그러니 잘 못 준다는 거다. 내 먼저 하나 묻겠다. 너희들은 돼지에게 진흙, 숯덩이, 소금, 골분 (뼈를 가루로 만든 것) 같은 것을 먹인 일이 있느냐?

성태—진흙과 숯덩이를 먹이다니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척척 할아버지—아니다. 동물들은 식물성 사료 외에 광물성 사료도 먹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처럼 식물성 사료만 자꾸 먹이니까 돼지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찾아서라도 광물성 사료를 먹는 거란다. 그래서 땅을 뚜지는거지 더 자세히 말하면 돼지들의 코 안에는 특별한 뼈가 있는데 돼지는 이것으로 능히 땅 속에 있는 풀뿌리까지도 파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사료 성분이 고루지 않거나 돼지에게 필요한 성분이 모자랄 때는 땅을 뚜져서라도 찾아 먹으려고 애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사료를 옳바로 주어도 그냥 땅을 뚜지게 된다. 이 버릇을 방지하자면 우선 어릴적부터 사료를 옳게 주어야 하며 또 돼지우리도 튼튼한 것으로 지어야 한다.

성태—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료는 정확히 주어야 겠군요.

척척 할아버지—그렇단다.

정자—할아버지 그런데 돼지 꼬리는 왜 자르나요?

척척 할아버지—음 아주 재미 있는 질문인걸, 돼지 꼬리를 자르는 것은 나쁜 물질과 가스를 빼버리기 위해서이지, 돼지 꼬리를 잘라 주면 나쁜 물질과 가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 몸에 피가 잘 통하게 되고 따라서 음식 사료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게 되므로 돼지가 살이 잘 지게 된다. 이 때 돼지 몸 무게 1키로그람에 피 7cc 정도 빼고 15~30일에 한 번씩 3~4 회 실시하면 가장 적당하다.

국영 장진 목장에서는 9개월 되는 돼지에게이 방법을 쓴결과 하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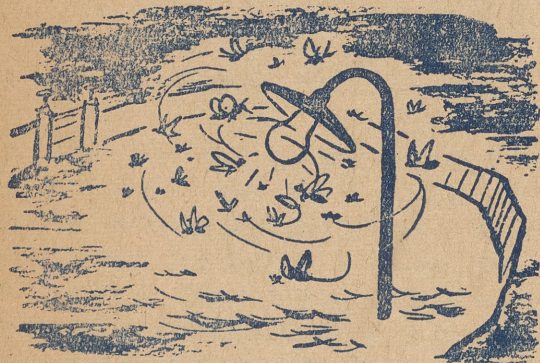
키로그람 이나 살을 지웠다.

정자—야 대단한 성과구나.

인숙—저는 전기 절약 초소원이예요. 그런데 양어반 동무들은 매일 밤 양어장에 전등을 두 개씩이나 켜 둔 채 집에 가군 해요. 그래서 난 전기를 랑비하는 현상에 대하여 비판을 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 나중엔 제가 껐구요, 그런데 글쎄 그네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양어장의 불을 껐다고 야단 치지 않아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옳지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네가 잘못이야, 아마 너는 일하는 공장에 가서 전기를 끄라고 하지는 않겠지.

인숙—그야 물론이지요 뭐, 그러나 양어장에선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척척 할아버지—그 밤 전등이 바로 일을 한단 말이다. 이제 들어 봐라. 너희들은 여름밤 흔히 갖가지 벌레들이 방안으로 들어와 전기'불을 맴돌며 날고 있는 것을 보았을 테지 이런 습성을 추광성(빛을 따라 오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비단 벌레들

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짐승들에게도 있다. 바로 이 습성을 우리는 농업과 수산업에 리용하고 있다.

인숙—그럼 바다'가에서 밤에 홰'불을 밝히고 까나리를 잡는 것도 이 원리인가요?

척척 할아버지—그렇지, 논판이나 양어장에 전기를 켜 놓는 리유는 농작물에 해를 주는 벌레를 잡기 때문이지 즉 벌레들은 켜 놓은 전기'불을 보고 모여 와서 맴돌다가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농작물은 피해를 받지 않고 고기들은 이 사료를 먹고 살이 지며 부쩍부쩍 자라게 된다. 이것은 인공 사료를 절약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인숙—그러구 보니 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댔구만요.

척척 할아버지—이를테면 그렇지 하하…

광찬—할아버지, 우리 생물 크루쇼크에서는 수족관을 만들고 각종 고기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일요일 강에서 잡아 온 붕어를 끓였다가 식힌 물에 넣었더니 얼마후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가요?

척척 할아버지—그야 죽을 수 밖에 만일 너를 공기가 없는 통 속에 가두어 둔다면 살겠냐? 이와 마찬가지지.

광찬—아니 물'고기도 숨을 쉬나요?

척척 할아버지—물론이지, 물'고기는 공기 (물 속에 용해된 산소)를 흡수하며 산다. 너는 모든 가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 간다는 것을 알겠지, 그런데 물'고기의 피 속에 있는 산소의 압력은 물에 용해된 산소의 압력보다 낮단 말이야. 때문에 물에 용해된 산소는 물'고기의 아가미에 있는 모세 혈관을 통하여 피 속으로 들어 오게 된다. 이것이 곧 물'고기의 호흡이란다.

광찬—그럼 끓인 물에는 산소가 없나요?

척척 할아버지—그렇지 모두 증발해 버린단 말이다. 다시 말하면 끓여 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물이나 한 번 끓인 물은 물'고기들에 필요한 공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물'고기를 끓인 물에 넣으면 죽을 수 밖에 없지.

광찬—알겠어요, 할아버지 이건 다른 문제지만 가재미(넙치)의 눈은 왜 다른 물'고기와 달리 한쪽에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그야 자기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광찬—?!

척척 할아버지—내 하나 물어 볼테니 어디 대답해 봐라. 가재미의 모양과 생활 습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 봐라.

광찬—그야 매일 보는걸요. 몸은 납작하고 짧은데 깊은 물 속에서 누워 있는 모양으로 헤염쳐 다니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옳다. 잘 대답했다. 바로 그런 생활 양식에 알맞게 몸도 변하게 된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가재미는 처음엔 알에서 새끼로 될 때까지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얕은 물에서 놀고 눈도 량쪽에 있고 몸도 통통하다. 그런데 가재미는 부레가 없는 고기이므로 점점 커 감에 따라 깊은 물 속으로 내려 가게 된다. 따라서 몸도 평평해 지고 눈도 한쪽으로 옮겨 오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바다 생활에 알맞게 몸도 변하는 것이다.

상혁—할아버지 우리 해양 크루쇼크원들은 방학을 리용해서 자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배 밑을 좁게 만드는 원인은 뭡니까?

척척 할아버지—하하 그것도 모르느냐? 물은 점성이 크기 때문에 마찰 저항도 큰 것이다. 그런데 만일 배 밑을 네모나고 넙적하게 만들었다면 배를 전진시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니 또 속도도 느려지고 그러니 물과 마찰을 가장 적게 하고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하자면 배 밑은 우에서부터 점점 좁아져야 한다. 이 원리는 땅 우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바람의 저항을 받기 위해 류선형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리치이다. 또 스케트의 날이 뾰족 할 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역시 같은 원리이다.

충걸—할아버지! 저는 위생 근위대원이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계획에 따라 꼭꼭 일체 침구나 의복 등을 일광 소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척척 할아버지—근위대원 다운 질문인걸 그럼 설명해 주지, 태양 볕에 어떤 광선들이 있는가 알아야 한다.

충걸—그야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알려 준 것처럼 7 가지 색들이 모여서 백색 광을 이루고 있지요 뭐.

척척 할아버지—물론 7 가지 광선이 합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색 광선과 자색 광선 외에 자외선' 적외선이라는 색이 없는 광선이 또한 있는 것이다. 바로 이 광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외선이 세균체 내의 담백질을 응고시켜 세균을 죽이는 한편 세균이 내 보내는 효소와 독이 있는 것을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바로 이것은 소독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광 소독을 하라는 것이다.

충걸—오늘도 크루쇼크 활동에서 도움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모를 것이 있으면 또 찾아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척척 할아버지— 오냐 잘들 가거라.

편집부로부터

편집부는 잡지《소년단》을 보다 내용이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하여 금년중에 발행된 잡지《소년단》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1) 지금까지의 기사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재미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미 없은 것은 어느 기사였습니까?

(2) 동무들의 소년단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은 어느 기사였습니까?

(3) 어떤 기사들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까?

(4) 형식에서 어느 호가 동무들의 마음에 듭니까? (그림 사진에 대한 의견?)

(5) 그외에 잡지《소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적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이 였던가?

그림 정 승교

얼마 전에 《소년단》 편집부는 황해북도 평산군 상암 중학교 5분단 동무들로부터 학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상암 중학교 5분단 동무들이 정성들여 키우던 토끼를 루천 중학교 정 태인 동무가 몰래 가져 갔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토끼 사건을 둘러싸고 정 태인 동무네 루천 중학교 3분단 동무들이 취한 옳지 못한 행동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 편집부에 옳은 해결을 바란다는 부탁의 내용도 전해 왔습니다.

편집부는 이 편지를 받은 이후 기자를 그 곳에 직접 파견하여 모든 사실을 정확히 해명하고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토끼를 잃은 박 영자 동무는 산'골길 십리'길을 걸어 정 태인이를 찾아 왔습니다. 태인이는 이때 마침 태승이와 함께 토끼풀을 뜯으러 마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에 달려 오고 있던 영자는 태인이를 만나자 마자 《태인아! 너 마침 잘 만났다. 우리 토끼를 돌려 줘 응!》 하고 애원하다 싶이 말했습니다.

태인이는 당황해서 《뭐 토끼는 무슨 토끼…》하고 말끝을 흐려 버렸습니다.

《태인아! 그 토끼는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지만 내 개인의 토끼가 아니라 분단의 토끼야 어서 돌려 줘…》 영자는 태인의 동정을 살피며 안타까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스운 일 다 보겠구나, 그래 내가 토끼 가져 오는 것을 네가 봤니 봤어? 언 참…》 태인이는 이렇게 소리 치다싶이 대'구하고는 태승이 더러 빨리 가던 길이나 가자고 하면서 돌아 서는 것이였습니다.

영자는 태인이를 뒤좇아 가면서 《네가 토끼 가져 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우리 집 식구들은 조합벌에 나가시고 안 계셨지만 옆집 할머니가 태승이와 같이 와서 가져가는 것을 봤대… 어서 줘…》 하고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태인이와 태승이는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 보더니 태인이가 얼른 《뭐야 그건 어제 태승이 하구 나하구 주암리에 가서 토끼를 사 가지구 그리로 지나온 것을 할머니가 잘못 보구 말하는거야, 그 토끼는 우리가 사 왔는데 여러말 말라.》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 성을 내여 말했습니다.

영자는 태인이 하구 싸우다 못하여 나중엔 토끼 사온 집을 가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인이는 영자가 자기보다 약한 녀자애라고 얕보고 주먹을 내밀며 올러대였습니다. 이때, 영자는 안타까워 토끼를 빨리 달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인이와 태승이는 울고 있는 영자를 바라 보다가 《토끼 사온 집에 가 볼테면 가자! 갔다가 우리가 사왔다는 것이 판명되면 너는 혼 날 줄 알라.》하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따라 가게 되였습니다.

태인이와 태승이는 영자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다가 어느 집 앞에 이르러서 동무네 집에 들려 나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영자는 집 앞에 서서 기다리게 되였습니다.

태인이와 태승이는 집 마당으로 들어 가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영자 몰래 뒤울안 울바자를 타고 넘어 뺑소니를 쳤습니다.

영자는 뺑소니 치는 그들을 향해 목청껏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두워 오는 저녁길을 혼자 걸어 오는 영자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가 찾아 다니는 이 토끼는 봄에 병든 토끼를 자기 반에서 구원해 보자고 하면서 토끼를 자기 집으로 가져 왔던 것입니다. 영자는 물론, 반원들도 정성껏 토끼를 간호하였습니다. 그래 이즈음에 와선 새끼까지 배여 며칠 안 있으면 새끼를 낳게 까지 되였습니다. 이 사실은 분단에 까지 알려져서 분단 동무들을 기쁘게 하였고 분단 모임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끼를 잃어버린 것을 분단 동무들이 알게되면 얼마나 섭섭해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토끼를 어떻게든 꼭 찾아 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 저리 생각한 끝에 태인이와 태승이가 속해 있는 분단 집단에다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단 집단은 반드시 옳게 해결해 줄 것이고 영자를 애말리던 태인이와 태승이를 단단히 충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자는 이튿날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모범반원인 선녀를 데리고 태인이네 분단을 찾아 시오리 산'골길을 걸어 갔습니다.

영자와 선녀가 분단 동무들을 찾아 갔을 때는 태인이는 군 축구 시합에 나가고 없었고 토끼를 가지러 같이 다니던 태승이 만이 있었습니다.

영자와 선녀가 분단 위원장과 분단 동무들 앞에서 찾아 오게 된 사유를 이야기하자 분단 동무들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촌바위들이 와서 을러대네.》하고 떠들었습니다.

태인이는 분단 동무들 앞에서 4 원주고 사 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자와 선녀에게서 자세한 말을 듣게 된 동무들은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옳은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것이 분단의 위신 문제라고 덮어 놓고 자기 분단의 태인이 만을 옹호해 나서며 영자를 놀려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 영자와 선녀는 태인이가 사온 토끼를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 속에는 분단 위원장도 있었고 분단 열성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학교 동무들에게 분별 없이 덤비며 욕설하고 있는 분단 동무들의 옳지 못한 태도를 보고도 충고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자와 선녀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이 토끼 사건은 영자 동무네 분단에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영자네 분단 동무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분단 열성자들과 같이 다시 찾아 가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영자와 선녀, 분단 위원장을 비롯한 분단 열성자들이 태인이네 분단 동무들을 찾아 갔을 때였습니다. 태인이네

분단 동무들은 우루루 밀려 나와 남의 학교에 왜 함부로 들어 오느냐고 떠들면서 또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태인이가 이미 영자네 집에서 토끼를 몰래 가져 왔다고 분단 들무들에게 솔직히 이야기 한 후 임에도 불구하고 동무들은 이렇게 무례하게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자 동무와 열성자들이 태인네 분단 동무들 앞에서 직접 태인이를 만나 명확히 해명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토끼를 돌려 주게 된 태인이네 분단 동무들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 줄테니 그때 가져가라.》고 소리치기도 하였고 또는 숫토끼를 바꾸어 주면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야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떠들다가야 비로소 영자네 토끼를 돌려 주었습니다.

영자 동무네 분단 동무들이 토끼를 찾아 가지고 나와 교문 밖에 멀리 사라질 때 까지도 이 분단 동무들은 계속 《촌바위들아! 다시 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토끼를 찾아 가지고 돌아 오던 영자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분단 동무의 잘못을 진심으로 충고할 대신에 오히려 분단 집단이 한무리가 되여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영자네 분단 동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분단에서 의논한 끝에 《소년단》 편집부에 편지를 보내게 되였던 것입니다.

× ×

토끼 사건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토끼를 누가 어떻게 가져 갔으며 어떻게 찾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분단 집단의 태도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정 태인 동무네 분단에서는 《분단 집단의 참된 영예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끼 사건을 둘러 싸고 벌러진 분단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동무들은 정 태인 동무의 잘못을 고쳐 줄 대신에 자기 집단의 위신 문제라고 잘못을 감춰 주면서 정당하게 찾아온 동무들을 모욕하고 욕설한 것은 진정한 집단의 영예를 모르는 데서 나온 행동이였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이 동무들이 잘못을 옳게 깨닫는 것을 보고 현지에서 돌아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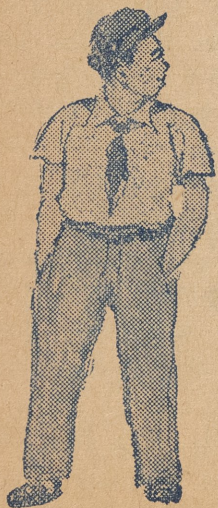
요즘 두 분단 동무들로부터 편지를 보내여 오는데 두 분단 동무들은 한자리에 모여 친선 련합 모임을 가지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 태인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지난날 자기들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친선을 맺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 현재 두 분단 동무들은 서로 사업 경험을 교환하면서 소년단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본사 기자)

☆ ★ ☆

어부 놀이

평양 체육 대학 한 유석

어부 놀이 유희는 유희자들 중에서 한 사람의 유희자를 어부로 정하고 기타의 모든 유희자들은 고기가 되여 물에서 자맥질을 하며 뛰노는 유희이다.

(1) 편 가르기

유희를 조직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전체 유희자들 중에서 어부를 한 사람 정하여야 한다. 어부를 선정하는 방법은 자맥질에 의한 경쟁 결과에 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어부에게는 고무 공을 하나 준비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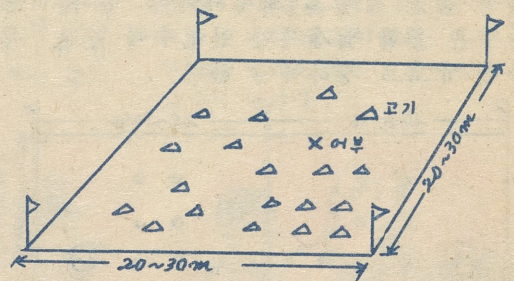
(2) 유희장

유희장은 물이 허리 정도에 차는 그리 깊지 않는 곳으로서 물 밑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림과 같은 유희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유희장의 넓이는 유희 참가자 수에 따라 적당히 정하여야 한다. 유희장의 구획은 기'발로 그의 모소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유희 방법

어부가 된 유희자가 고무 공도 하나 가지고 유희의 시작 신호에 따라 고기가 된 유희자들을 따라 가 공으로 던져 마치도록 노력한다. 고기들은 어부의 공에 맞지 않도록 유희장 내에서 이리저리로 피하든가 자맥질을 하여 숨든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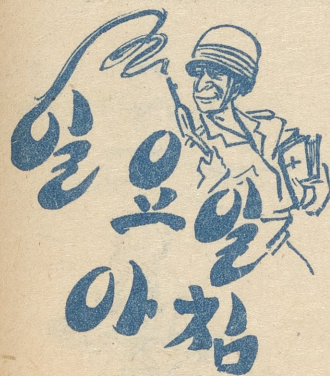
고기가 어부의 공에 맞으면 맞은 고기는 어부가 되고 어부는 고기로 바뀌여 새로운 어부에 의하여 유희를 계속 한다.

유희는 10분 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유희 실시상 주의

①. 유희장은 안전한 곳이여야 하며 물이 맑고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이여야 한다.

②. 유희에서는 유희자들이 유희장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희에서는 반드시 유희 참가자들의 인원수를 정확히 세도록 하여야 한다.

일요일 아침

허 놀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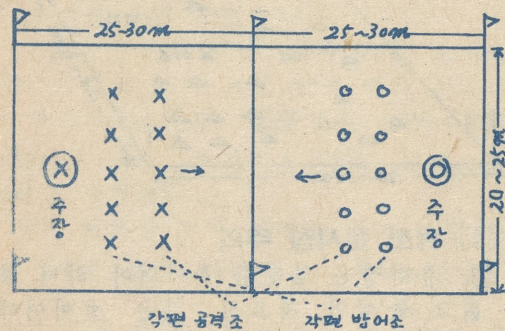
물 싸움 놀이

물 싸움 놀이는 편을 갈라 서로 물 싸움을 하면서 노는 장쾌한 유희이다. 수영 훈련을 할 때에는 미리 이런 유희를 실시하고 훈련에 들어 가는 것이 좋다.

(1) 편가르기

유희자를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누어 각각 자기 편의 주장에 의하여 유희자를 공격조와 방어조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유희장은 물이 깊지 않은 곳으로서 물밑'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고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택하여 그림과 같이 일정한 유희장 내를 기'발로 표시하여야 한다. 유희장은 유희 참가자의 인원수에 따라 적당한 규모로 정하여야 한다.

(3) 유희 방법.

유희는 상대편의 주장을 먼저 붙잡도록 경쟁을 한다.

유희의 시작 신호에 의하여 공격조는 상대편의 주장을 붙잡도록 앞으로 돌진하며 방어조는 상대편 공격자들의 공격을 막으면서 자기 주장을 잘 보위하여야 한다.

유희과정에 있어서는 유희자들이 상대편과 맞서게될 때에 손으로 물을 끼얹으며 공격과 방어를 한다.

공격자들은 주로 공격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방어자들은 방어의 역만을 한다. 공격자들은 상대편의 방어자들의 방어선을 뚫고 상대편의 주장을 먼저 붙잡도록 노력한다. 방어자들은 상대편의 공격자들의 공격 태세를 잘 판단하면서 자기의 주장의 상대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몸을 피하면서 보위한다.

유희는 먼저 상대편의 주장을 붙잡은 편이 이긴다.

유희는 량편이 자리를 바꾸며 공격과 방어조의 역할을 교체하면서 수 회 실시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유희 실시상 주의.

①. 주장에게는 색갈 모자를 씌워 유희자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주장은 상대편의 공격자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유희장 내를 이리저리로 피하고 자맥질을 하여 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희장 밖으로나 또는 상대편의 방어 구역 (중앙선 넘어)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위반된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붙잡힌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유희에서는 주장을 제외한 모든 유희자들이 공격과 방어를 위하여 상대편의 몸을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④. 유희자들은 물 속으로 기거나 헤염을 치거나 걷거나 달리거나 자유로히 행동할 수 없다.

가을철에 소년 위생 근위대원들이 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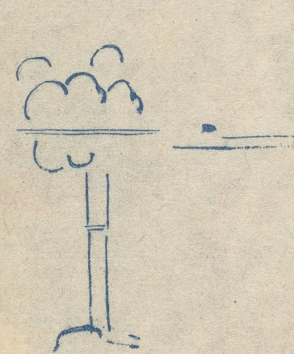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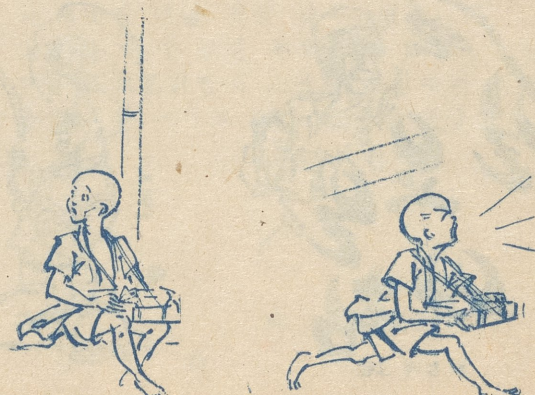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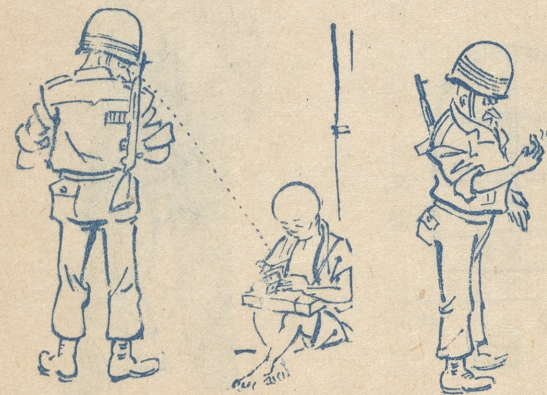
(1) 쌀쌀한 바람이 부는 첫 가을이 찾아 왔다. 날씨가 차다고 세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랭수 마찰을 하기 싫어 하는 동무들은 없는지요?

(2) 모기는 무서운 《일본 뇌염》과 《소아 마비》 병을 옮기는 고약한 놈이다. 모기를 한 마리도 남김 없이 모조리 때려 잡으며 물 웅덩이를 메꾸며 잡초들을 없애는데 한 사람 같이 나서자.

(3) 우리 나라에는 지스토마란 토질병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우리들은 지스토마를 전파하는 가재 골뱅이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 없애는데 앞장서 나가자!

(4) 참새는 농민들이 한 해 여름 애써 가꾼 낟알들을 훔쳐 먹는 고약한 새이다. 우리들은 참새를 박멸하는 일에도 열성껏 참가하자!

(5) 지금 우리 나라 농촌과 거리들에는 수 많은 목욕탕 우물 변소들이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소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더 잘 어른들을 도와 나서자.

(6) 로인들 속에는 아직도 위생에 대해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소년 위생 근위대원들은 항상 위생 선전에서도 모범을 보이자!

두 일학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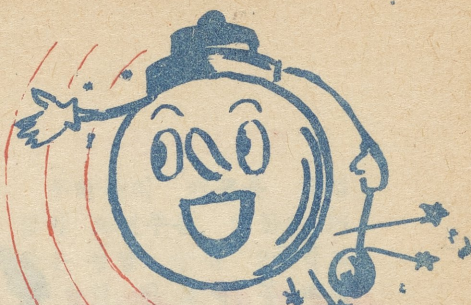
9월 초하루는 여덟살이 된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학교에 가는 개학날입니다.

신 혜숙과 신 성호 두 오누이는 금년 모두 일학년에 입학하였습니다. 성호는 인민반 1학년에 입학하였고 혜숙이는 초급반 1학년에 입학하였지요.

(1)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갈 일로 부산을 피웠습니다.

어머니는 두 일학년생들에게 새 책가방과 새 책을 내주시며 중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수많은 대학교들을 새로 세워 누구나 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된 이 크다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타이르셨습니다.

(2) 학교로 가는 오누이 일학년생들은 《누나 난 이제 크면 집을 짓는 기술자가 될테야》

《좋아 난 훌륭한 화학 기술자가 되구 》

신바람이 나서 자기들의 희망을 말하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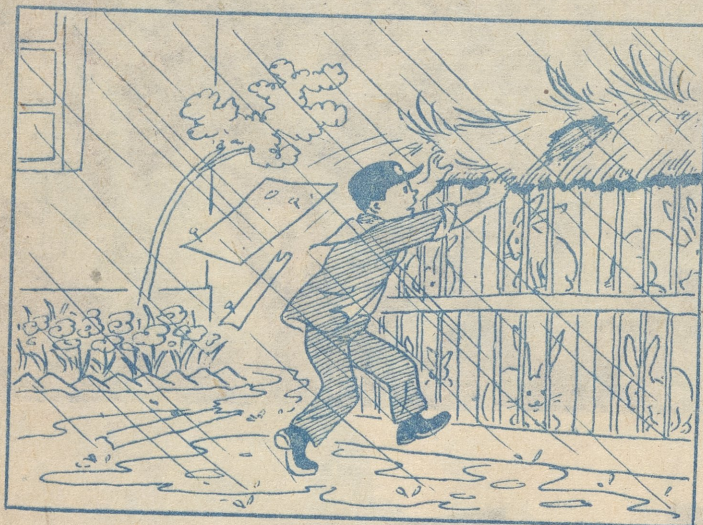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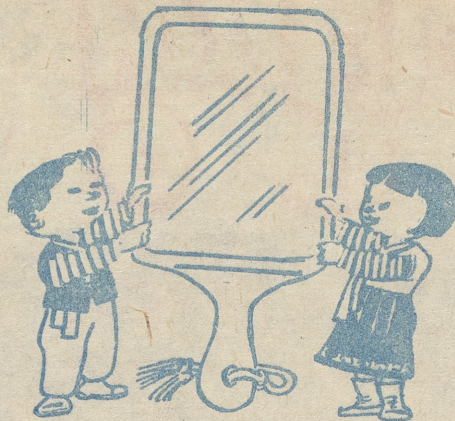
(3) 《여기가 우리가 다닐 평양 전승 중학교란다. 네가 공부할 교실은 저기 아래 교실이구 난 이층이란다.》 누나인 혜숙이는 처음 학교에 오는 동생 성호에게 다정히 이야기하여 줍니다

(4) 《너희들의 입학을 축하한다》

교문에 나와 계시던 선생님은 두 일학년 생들을 반가히 맞아 주었습니다.

(5) 두 오누이는 행복과 기쁨으로 들먹이는 가슴을 안고 첫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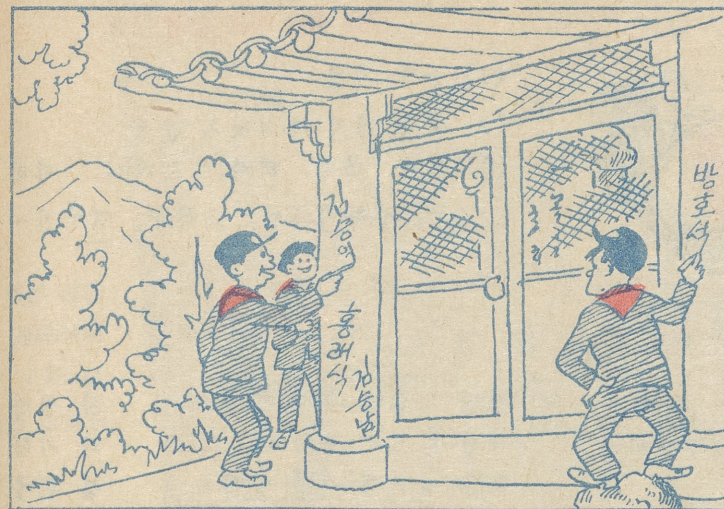
첫 수업에 참가한 누나는 《초급반 과정도 꼭 최우등으로 끝낼테야》라고 결심하였고 동생 성호는 선생님의 지도로 벌써 셈세기를 척척 자신 있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첫 수업에 참가하여 결심한 대로 꾸준히 학습해 나간다면 최우등은 의심할 바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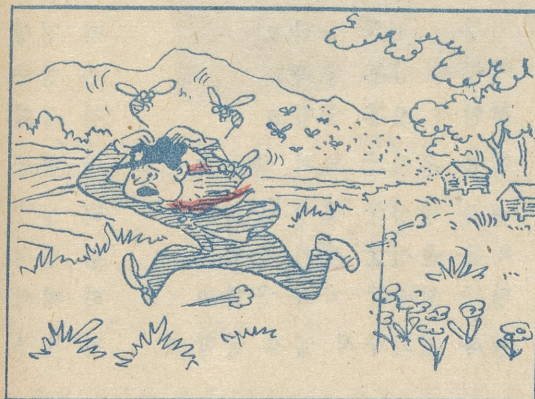
행동의 거울

그들의 것은 우리 학교의 것이다.

우리의 행동의 거울 속에 나타난 김책 장연 중학교 2분단 방 수원 동무의 착한 행동을 보십시요 저녁에 일이 있어 학교에 나왔던 그는 다른 분단 동무들의 토끼장 지붕이 비'바람에 벗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 지붕을 덮였고 비에 젖은 새끼 토끼들은 집으로 안고 가서 보호 하였답니다.

《훌륭한》 손님 《대접》

거울 속에 나타난 동무들이 어느 학교 동무들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바로 평양 련화 중학교 동무들입니다. 석암 야영소로 가는 지방 소년단원 동무들이 자기네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귀중한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을 대신 그들은 창문으로 내려다 보며 《촌놈, 촌놈》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런 것이 과연 손님을 대접하는 소년단원들의 태도일가요.

한심한 장난'군들

우리들의 행동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행동의 거울은 평남 순천 2중학교 김 승익, 방 호석, 홍 래식 김 승남 동무들이 력사 유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며 파괴하는 행동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력사 유물을 파괴하는 동무들이 과연 사회주의—공산주의 조국의 주인이 될 동무들이라고 할 수 있을가요?

몇 가지 잘못인가?

거울 속에 나타난 함남 대흥군 대흥 고급 중학교대 7분단 전 태옥 동무의 얼굴을 좀 보십시요 이 동무는 협동 조합 꿀통을 남 몰래 뒤지다가 그만 보초를 서던 벌에게 발각이 되여 이 꼴이 되였습니다. 이 동무는 사실이 부끄러워 이가 쏴서 볼이 부었다고 동무들에게 거짓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무의 잘못이 몇가지 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함남 오로군 수원 중학교 김 경철 동무와 한 창호 동무들이 논판에서 덩굴며 싸우는 모양을 보십시요 이들은 이 새끼 저 새끼하며 좋지 않은 말로 롱담하다가 서로 노엽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쁜 말을 쓰는 사이에 무슨 좋은 말을 듣겠다구 싸우는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7호 현상 문제 해답

(1) 공작 기계

(2)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3) 선반, 불반, 쎄빠, 프례나, 미링구, 후라이스반, 호빙구, 연마반…

당 선 자

황남 벽성군 룡정 중학교	차 선자
개성시 고려 중학교	리 기형
함북 김책시 신평 중학교	김 휘국
함북 온성군 고성 중학교	최 승규
평양시 교구 중학교	정 진형
평양시 인흥 중학교	한 영주
평양시 상흥 중학교	김 상희
평북 선천군 로하 중학교	전 창근
평북 향산군 룡성 중학교	리 일수
평북 운전군 명미 중학교	김 창서
평북 철산군 리화 중학교	리 경식
평북 신의주시 압강 중학교	김 선봉

찾아 내세요

아래의 문장은 어느 작품에서 뽑아 낸 글입니까? 그 작품의 제목은 무엇이며 어느 페지에 씌여 있는지요?

× ×

《그들의 두 다리는 보기도 흉하게 퉁퉁 부어 올랐고 발'가락은 얼어 물'집이 생겼고 이제는 그것 마저 터졌다. 발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집이 터진 자리가 신발에 스쳐 피가 흘렀다.

만일 그들이 아동단에서 교양 받고 훈련된 아이들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였겠는가! 그들은 간고하고도 어려운 혁명의 투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였다.》

편집 위원 김 주현 (주필) 강 효순 림 홍은 박 웅호 송 정우 정 택선 조 순형

1959년 9월 10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9년 9월 15일 발행 《소년단》 1959년 제 9호 (총 119호)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4395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전국 청년 해양 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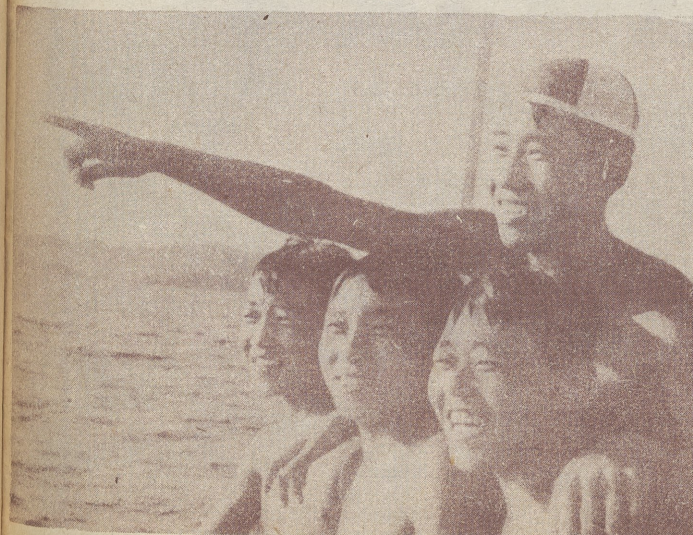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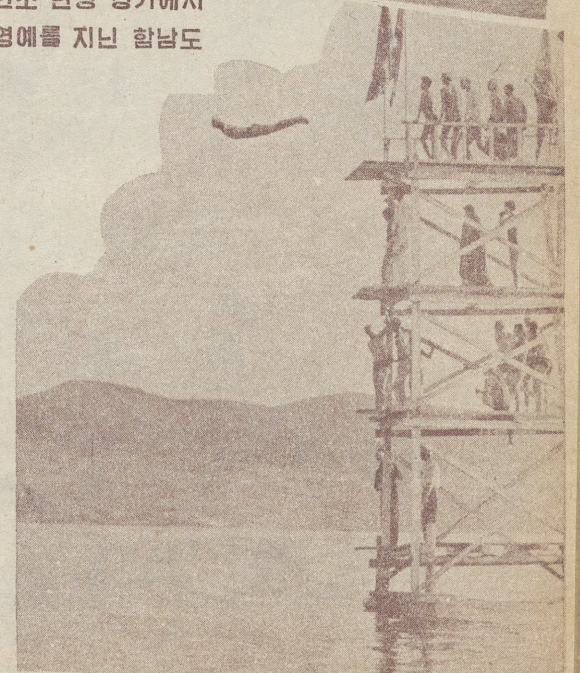
→ 전국 청년 해양 축전 개막식에 참가한 체육, 예술인들의 대행진

전국 청년 해양 축전이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함남도 신포에서 열리였습니다.

축전에는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고 수산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 있는 각지 수산 부문 청년 어로 로동자들, 학생 소년들이 광범히 참가하였습니다.

이 축전 기간에 전국 수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가 진행되였고 체육 예술 축전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전국 청년 해양 축전은 각지 청년들이 바다에 대한 동경과 사랑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혀 주며 해양 스포츠 및 예술 써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녀자 4인조 단정 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함남도 대표

《바다는 얼마나 좋으냐!》

7m 뛰여 들기 경기

윈나 축전에서 상을 받은 우리나라 어린 화가들의 작품

영예를 지니고

지난 6월 어느날 나는 제 7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아동 작품들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나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캔파스를 메고 대동강반으로 나섰다. 그때 나는 로동을 끝마치고 온 가족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은 나의 마음을 끌었다. 그리하여 나는 《무더운 날》이라는 제목의 수채화를 그리게 되였다. 우리 나라 축전 준비 위원회에서 나의 그림은 당선되여 축전에 보내게 되였다. 그때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또 뜻밖에도 축전에서 우리 나라에서 보낸 다른 작품들과 함께 내가 그린 《무더운 날》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하여 알았다. 그때의 나의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다. 나는 정말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자라는 공화국 소년의 행복과 자랑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학습하여 앞날의 훌륭한 미술가가 되여 나라의 은혜로운 배려에 보답할 결심이다.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 초급반 2년 황 인 재

☆ 평양 남산 고중 초 2년 황 인재 (13세)가 그린 수채화《무더운 날》

☆ 평양 창전 중학교 초 1년 김 장성 동무가 그린 조선화《제 2 대동교 건설장》